東友會報

發行人 鄭 在 哲
編輯人 尹 天 泳
印刷人 李 揆 行

發 行 人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 窓 會
直 通 (267) 8568
交 換 (267) 8131～9
非 賣 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宜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內實위한 會費정성 더욱절실

납부實績저조 "年會費라도 꼬박 내자"

본회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각종會費의 솔선납부가 절실히 요청된다。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의 기여」라는 二大목표를 달성하려는 본회의 意志가 예산부족으로 口頭彈이 되는등 제반활동이 크게 위축되고있어 더욱 그러하다。 어려운 경제여건탓도 있겠지만 금년도 회비수입실적은 수입예산액의 20%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집행부의 弘報미흡도 있겠지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결여도 문제점이되고 있다。

全동문 參與아쉬워

본회에서 누누히지적, 강조해오고있는 터이지만 앞으로의 동창회는 일부독지가나 열성동문 몇몇에 의존하는 운영방식이 아닌, 전체동문의 참여로 탈바꿈해야할 시기를맞은것이다。 말하자면 동창회는 전체동문이 참여하여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전체동문의 필요단체로 발전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財政의 자립기반이 구축되어야하고 財政의 기틀은 회원개개인의 회비로 충당되어야함은 너무나당연하다。 그러나 아직 많은동문들이 강제성이없는 회비납부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음으로해서 본회활동에 차질을 안겨주고 있다。

「5천원」은 誠意문제

81회계년도 절반이상이경과한 9월말현재 年회비수입은 1백여만원에 불과하여 예산액 5백만원의 20%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임원회비도 목표액 3천8백50만원중 6백40여만원박에 들어오지않고있어 남은 회계기간동안 각종회비 납부독려는 불가피해지고있다。

본회는 그동안 각종회비수입에의존, 會報발행과 장학사업및 재학생활동후원, 일반경상비용을 충당해오고있는데 동창회의 自生·自存을 위해서도 전체회원의 관심이 높아져야겠다。

동창회활동은 바로「관심」부여이다。 모두의 관심이 『나와더불어 모교를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명심한다면 1년에 5천원씩내는年會費가 결코부담스러워 못낼금액은아니다。 한방울의물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個個人의 정성어린 회비가 모아져 本會의 內實을 다지게될 것이 확실하다。

任員會費 솔선있길

또한 會則에 의해 납부하게된 理事급이상 任員會費는 제11대회장단이 목표로 추진하고있는 특수장학사업 轉用金으로 計上되어있어 「임원회비=장학기금」이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다。

현재 본회임원의 회비는 이사가 年5만원, 常務理事20만원, 감사및재단파견임원50만원, 회장단 1백만원을 내도록 되어있다。

單位別 단체納付도

한편 경상예산 확보를위해 지부·지회등의 단위조직의 경우 年회비만은 본부동창회로 단체납부하여회비정착화에 솔선수범해야겠다。

각종회비 납부방법은 동우회보발송시마다 동봉하고있는 우편대체구좌용지로가까운우체국에 가서 불입하거나본회사무국(267 8568)으로 直納, 또는 연락하여 납부하면 된다。

中興대열 同參결의

會長團·學生 간담회열어

모교 學生處(처장·吳國根)가 주관한 본회 회장단·재학생간부 연석간담회가 지난9월26일(토) 오후 경기도파주군소재 초원농원에서 열려 선후배간의 격의없는 대화로 東國발전을 공동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에서 柳周馨·孟殷在부회장과 尹天泳사무국장이, 재학생측에서는 金洪千총학생장을비롯 각단과대회장·집행부서장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는 본회회장단의 재학시절회고담및「사회에서 본는 大學」등에 관한 격려사에 이어 自由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되었다。

"勉學意志가 校勢좌우"

鄭在哲회장 학생간부에 당부

본회 鄭在哲회장은 지난 9월29일 모교 학생처가 마련한 각 써클長과의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대학발전의 관건은 후배여러분의 勉學意志가 얼마나 充滿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전제하고『냉정한사회의 실력싸움에서 상승하는 동국인의 긍지를 보여 뿌리깊은 대학의 전통을 더욱 빛내달란』고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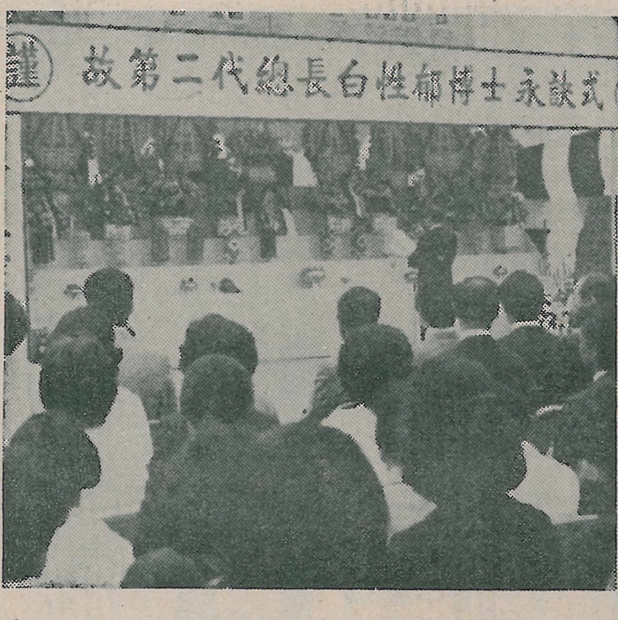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는 모교에 등록된 총44개써클중 43개 써클대표가 참석하여 대화문화와 써클의역할, 연구써클의 면학분위기 조성, 東國의 전통 계승등을 주제로해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간담회에 본회에서는 鄭회장을 비롯 洪鳳來부회장, 文明麟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하고 재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東國人의밤」일정 確定

12月18日, 앰배서더호텔로

本會는금년도「東國人의밤」행사를 오는 12月18日(金) 오후6시 앰배서더호텔2층 大宴會場에서 가질예정으로 場所예약을 마쳤다。

금년으로 10回째가되고있는 同행사는 京鄕各地에 흩어진 東國人들이 한자리에 모여 東國발전의 內實과 前進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된다。



◇모교총장, 재단이사장, 동창회장, 내무부장관등을 역임한 故 白性郁박사의 영결식이 모교佛像앞에서 거행되었다。

故白性郁박사 永訣式 엄수

學校葬으로 5백여弔客추모

故白性郁박사

모교 제2대 總長, 재단이사장, 2·5·6代동창회장과 제4대 내무부장관을지낸 白性郁(19中央學林)박사가 지난9월16일 상오0시45분 용산區 이촌동반도APT2동205호 自宅서 노환으로 열반했다。 향년84세。

故 白性郁박사의영결식은 지난18일상오10시모교 불상앞에서 東國大學校葬으로 엄수되었다。 이날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 鄭在覺모교총장을비롯, 趙明基徐燉珏 전임총장, 본회 崔載九명예회장과 文泰植 洪鳳來 柳周馨부회장등 회장단및동문, 朴淇宗재단이사장및재단임원과 宗團간부스님, 遺族·친지·교직원 재학생등 5백여명이 참석, 고인의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에앞서 白박사의유해는 대형弔花를 앞세운영구차에 실려 오전9시반 이촌동 빈소를떠나 곧바로 故人이 평생토록그렇게아끼고 정을주던 東岳으로 직행, 9시50분 미리 대기중이던 동문·교직원·재학생들의 묵도를 받으며 영결식장에安着했다。

이어서 거행된 영결식은 三歸依禮로 시작, 讀經과朴淇宗모교재단이사장의法語, 趙熙榮모교총무처장의 故人에대한 약력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고인의 육성방송이 場內에 울려퍼질땐 참석한 弔客들이 다시한번白박사에대한 애도의 자세로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이어 조사의 순서로 장례위원장인 鄭在覺 총장은『故人이야말로 진정 東國을 사랑하고 東國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신 탁월한 東國人』이라고 유업을 높이 기렸다。

또한 6萬동문을 대표한 본회 崔載九명예회장은 조사에서『선배님은 우리東國이 배출한 입지전적인거인이며 동국인의 정신적인 보루였다』고 회상하고『비록 선배님은 가셨으되 선배님이 남긴 유훈과 업적은 東國史에 영원히 기록될것』이라고 故人의 열반을 애도했다。

이어서 유족과 조객들의 헌화·분향이 있었으며 四弘誓願을 끝으로 영결식을 모두마쳤다。

영결식이 끝나고 白박사의 유해는 ROTC학생들의 호위를 받으며 영구차에 올라 8년간 총장으로 몸담았던 모교캠퍼스를 떠나 벽제 다비장으로 옮겨져 다비절차를 마쳤다。

〈弔辭및 故人의 생애등 2面참조〉

1급자동차 정비공장 견인차 주야 대기
吾星工業社
영등포 문래동 정비단지 635-2828·3651～3

칼라사진의 선구
사진예술원
부설·P·A칼라 종합현상소
한국사진학원
종로2가 파고다 아케이트앞

한방울의 물이 모이고 모여 큰 강물이 됩니다. 會費는 內實을 다지는 會發展의 밑거름입니다. 후배 奬學사업지원을 비롯해서 더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너도 나도 정성어린 會費를 보냅시다.

□年 會 費 : 年 5천원 (영구회비 5만원以上)
□理事會費 : 年 5만원
□常務理事 : 年 20만원 □監事會費(재단파견 임원포함) : 50만원

奬學事業지원위해 會費를 보냅시다

납부처 : 동창회 사무국 ☎267－8568(직) 267－8131(교)465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

누구나 記者입니다

東友會報는 6萬동문의 소식통입니다。동문이면 누구나 받아 볼수있고。一線記者가 될수있읍니다。 주위에 아직도 東友會報를 안받아보는 同門이 있으면 住所·졸업년도·학과·姓名을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就任·영전·移轉·개업·出入國·결혼·回甲·訃音·近況등 회원동정을 提報해주시고 詩·수필·提言·夫婦동문·立志와 각급모임記事를 언제라도 보내주십시요。

보낼곳 중구필동3가26 동국대학교 동창회 ☎ 267－8568 267－8131 (교)465

故白性郁박사靈前에

永遠한 東國의 守護者 되소서

東國大學校總長
白性郁박사葬儀委員長 **鄭 在 覺**

우리는 오늘 여기에東國大學校 제2대총장 白性郁박사님과의 영결을고하는 조출한 자리를 마련하여 선생의 生前의 유업의 일단을 회상코저합니다.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마당에 서고보니 새삼悔恨과 애도의 세속적인 情懷가 앞서는 것을 피할수 없음을 감히 영전에 고백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1917년 경성불교중앙학림에 입학하셨을 때부터 선생과 동국대학교와의 관계는 시작되였읍니다. 졸업후 곧 상해임시정부에가담하신 것은 선생이 바로 호국불교의 전통정신의 계승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였읍니다.

그뒤 大志를 품고 鵬程萬里 불란서 독일등서구의 學園에서 近代學問을 수학하신것은 선생이 뜻한 근대문화의 충격의 원천을 스스로 체험하신 말하자면 開化의 先覺者임을 의미합니다.

귀국후에는 中央佛敎專門學校의 교직에서, 日帝의 압제가 극심할 때는 금강산의 修道處에서, 또는 광복과 더불어는 이승만대통령때의 내무부장관으로서 國家와 민족의 운명의 절박함을 안타까워하는 선생의 憂國衷情의 發露處를 구하였던것입니다.

그러나 1951년 東國大學校同窓會長 취임을 계기로 東國大學校總長, 東國學院財團理事長職等에 연달아 앉음으로써 선생의 정신적인 고향 동국대학교에 다시 回歸하시였읍니다.

爾來 春風秋雨 8개성상, 東國의 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신 선생의 노력으로 1957년을 전후하여 수도 서울을 한눈으로 굽어볼 수 있는 이 창창한 南山 기슭에 石造館을 비롯하여 大學本部、科學館、中央圖書館 기타 부속건물등 8천7백여평에 달하는 캠퍼스가 건설되고 양주군에다 다시 3만여평의 實驗農場까지 설치되어 東國大學校 70여년 역사에 하나의 금자탑이 이룩되었읍니다.

이러한 선생의 業蹟은 필경 가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育英의 대도를 이룩해 보겠다는 發願이 大東國의 건설 의지로 집약 구현된 것에 불외 합니다.

無始無終의 菩提心과 敎育救國이라는 선생의 의연한 기상은 유구한 동국사와 더불어 길이 수만동국인의 추앙의 빛이 될것입니다.

생각하면 선생이야말로 진정 동국대학교를 사랑하고 동국대학교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신 탁월한 동국인이셨읍니다.

비록 이제선생님은 먼佛國淨土에 귀의하시였으나 선생님이 꽃한송이、나무한그루마저 아끼고가꾸신 동국대학교는 날로 푸르고 날로 새로와질것입니다.

우리는 선생이 남기신 꿋꿋한 南山의기상으로 東國中興의 의지를 부단히실천하고 진리와佛心遍滿하는 大동국을 건설코자 매진하겠아오니부디 선생은 영원한東國의 수호자가되어서 고이잠드소서. 삼가 白性郁박사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1981년9월18일

1人3役해낸 東國史의 巨木

東國大學校同窓會 명예會長 **崔 載 九**

우리 동창회 초대회장이시며 고문이신 白性郁선배님!

불초 崔載九가 감히東國大學校 동문일동을 대신하여 선배님의 영전에서 영결의 인사를 올리게 되다니, 諸行의 무상함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옵니다.

선배님! 지금 선배님의 영정앞에서는 수많은 후배들이 모여 한결같이 선배님의 열반을 애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배님께서 이룩하신 東國史에 빛나는 찬연한 공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돌이켜보면 선배님께서는 이나라의 先覺者로서 유학의 길에서 돌아오시자 長安寺에 入山하시어 위대한 大道를 체험하셨으며 마침내 큰뜻을 세워 이를 實踐躬行하시는 一生을 보내셨읍니다.

三·一민족수난의 거치른 역사를 헤쳐나가시는 일에 앞장 서셨으며 조국광복후에는 한때 內務長官의 重責을 맡기도하셨고 憂國衷情으로 부통령 입후보등 항상 나라걱정으로 쉴사이가 없으셨던 선배님이셨읍니다.

소박하시면서도 유달리 스케일이 크셨던 선배님의 그 늠름하신 大人之風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옵니다. 확실히 선배님은 우리 東國이 배출한 立志傳的인 巨人이심에 틀림없읍니다.

白性郁 선배님!

선배님의 마지막 공직이기도 했던 모교총장시절은 참으로 동국중흥의 일대 전환기였읍니다.

선배님께서는 당시 취임사에서『대학의 권위를 확보함으로써 진실한 문화의 창조와 또한 우리 국가민족의 안일을 갖출수 있다』고 역설하셨읍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대학의 권위확보를 위해 먼저, 대학다운 대학건설을 강조 하셨으며, 당시 崇政殿과 판자집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대학교사를 어려운 재정난을 무릅쓰면서 마침내 현대식 건물로 일신하는데 박차를 가하셨읍니다.

남산 중턱 東岳에 건설의 메아리가 고동치더니 마침내 석조관이 우뚝서고 뒤이어 대학본관이, 그리고 도서관과 교수회관이, 과학관이 속속 들어서서 비로소 東岳이 학문의 요람으로서의 바탕을 이룩하고 그 권위를 빛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선배님께서는 대학문화창조가 곧 민족문화 발전의 전초작업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大藏經影印과 각종 출판을 위하여 교내 인쇄소를 설치하는등 실로 東國史에 우뚝 솟은 거목이요, 큰 별이 아닐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님께서는 당시 東國學院財團理事長職과 동창회장직까지도 함께 맡으셔서 어려웠던 시기에 그야말로 一人三役의 무거운 실무를 성공적으로 다하신 그 노고와 업적은 동국의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母校 總長職에서 물러나신 후로는 경기도 소사「白性목장」에서 남으신 생애를 오직 참선으로 보내시며 한편으로 金剛經저술에 마지막 힘을 쏟으신 선배님의 한없이 고결한 그인품에 절로 고개 숙여 집니다.

불초 제가 감히 선배님의 뒤를 이어 同窓會長이 되어 素砂의 牧場으로 찾아뵈었을때 어쩌면 生佛 같으신 모습으로 佛音같으신 목소리로 일러주시던 말씀이 이순간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의 母校가 宗立大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으시면서도『東國의 주인은 바로 東國人이니 졸업생, 재학생 할것없이 모든東國人은 友誼를 敦篤이하고 화합단결하여 상부상조함으로써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모교가 전통있는 민족의 大學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간곡히 당부 하시던 그때의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생생 합니다.

저희들이 선배님을 마지막 모신 것은 지난 77년12월17일 世宗호텔에서 열린「東國人의밤」행사에서였읍니다.

그때 선배님께서는 저희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시며 불편하신 老軀를 이끄시고 나오셔서 그자리를 한층 빛내 주시지 않으셨읍니까.

그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선배님이 오래 오래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며 조그마한 기념품과함께 뜨거운 박수로 만수무강을 빌었읍니다. 그뒤에도 여러차례 모시려하였사오나 끝내 선배님은 마음만 보내시고 몸은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이제는 영영 幽明까지 달리하시게 되다니 참으로서운한 情을 금치못하겠읍니다.

그러나 비록 선배님은 가셨어도 선배님의 그크신 뜻은 후배들에 의하여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선배님을 보내는 이자리는 어쩌면 우리東國人들이 다시 한번 東國을 생각하는 그런 뜻있는 자리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저희들은 선배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 높고 깊게, 더 넓고 밝게 東國의 슬기로운 의지를 갈고 닦고 키워나갈 것을 우리 모두 선배님의 영전에 삼가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선배님!「老兵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 갈 뿐」이라는 말이 있지 않읍니까, 선배님은 가셨으되 모든 東國人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敎訓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極樂往生 하시옵소서.

삼가 머리숙여 선배님의 冥福을 비옵니다.

一九八一年 九月 十八日

校庭구석구석에 그의 體臭가…

□白性郁박사의 生涯와 業績□

東國 近代史에 우뚝선 立志的 人物

總長·理事長·同窓會長등 全權을 한손에

石造館건립등 大學中興 전환기마련

東國이 배출한 立志傳的인 巨人 白性郁박사가 열반했다.

50년대초 政治人으로화려했던 白博士, 또 50년대후반에는 東國中興의산파역으로 불철주야 勞心焦思했던 그가 이제 天壽를 다누리고 無病無痛으로 홀연이 떠나갔다.

1897년8월19일에出生한 白박사는 7세때 壹洞학교를 수료하고 이어 漢文을 익히고 四書三經을 학습하였다.

15세때는 뜻한바 있어 정롱 奉國寺에서 崔荷翁선사를 恩師로하여 佛敎에 歸依, 이후 7년간佛典연구에 몰두했다.

1917년에는 신학문 신지식·신생동을 꿈꾸며 京城佛敎中央學林(모교전신)에 입학했고 佛파리의 보배고등학교, 獨불쓰부르크대학등에 유학하여 학문연구에 정진했다.

한편으로 白박사는 기미독립운동을 계기로하여 광복운동에 몸을 바쳤으며 계속 上海에있는 大韓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1946년부터는 李承晩박사를 중심으로 建國운동에 참여하였고 1950년2월에 내무부장관에 취임하여 6월이면38선이 무너진다고 예언하기도 했던 白박사는 결국은 6·25동란을 직접 처리하고 동년 7월에사임하였다.

1951년2월에는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에 취임, 기업경영자로轉身하는 한편 동년10월 본회 회장에 취임하여 명실상부한 동창회 활동기틀을 다지기에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1953년 8월에는모교총장으로 취임,『나의 모교, 내힘으로키우겠다』는 확고한 신념아래 우선 校舍를 짓는 일부터 착수했다.

釜山에서 還都해보니모교는 校舍 1평도 없고 校地조차 寸土가 없어막연하기 이를데 없는 형편이였다.

白박사는 먼저 대학다운 대학을 건설하기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一絲不亂하게 움직일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총장뿐만아니라 재단이사장까지 겸임함으로써 東國의 大役事를순조롭게 진행할수 있으리라고 판단, 1954년마침내 재단이사장에 취임하게되어 적어도「東國」에 관한한 최초로 全權를 쥐게된 장본인이 되였다.

白박사는 건축기사를옆에두고 매일같이 건축현장에 나가서 築石1개、철근 1조、洋灰、모래알까지 감시하였다. 실로 어느 한구석에라도白박사의 정성이 감돌지아니한 곳이 없었다.

白박사의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석조관이 들어서고、대학본관、도서관、교수연구실、과학관이 속속 들어섰다.

황량한 남산중턱에 갑자기 큰 건물들이 들어서자 市井의 관심이 집중된 것도 사실인데 1958년6월25일에는6·25기념식에 참석했던 李承晩大統領이 모교캠퍼스를 시찰하기까지 했다.

당시 李大統領의 모교시찰은 경무대의 美觀방해(?)가 한 이유였으나「白박사가 총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말없이 다녀가셨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처럼 白박사는 李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것은 52·56년 두차례에 걸친 부통령입후보에서도 엿볼수있다.

8년간의 모교 총장직을 마지막으로 일체의일선공직에서 물러난 白博士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서 會衆修道에 열중했다.「白性牧場」을보살피며 그는 老年을金剛經 持誦과 衆生지도로 일관했다.

白博士는 늙어서도 대쪽같이 꿋꿋하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生佛」이라는별명을얻기도했다.

누구보다도 통이 크고, 또 카리스마的 存在로도 일부의 비판을 받기도했白博士―그러나 白박사는 모교인 우리 東國大學校를 위해서 남달리 깊은 정열을 가지고 그의뜻을 펴기에 심혈을 기울인분이었다. 지금 그가 남긴 업적과 遺訓은 두고두고 東國史에 자랑이 되고교훈이 될것이다.

◇77년「東國人의 밤」에서의 白박사。

■白性郁博士 略歷

▲1897년 8월19일 漢城府 蓮花芳에서 白潤基씨의 장남으로탄생

▲1903년 壺洞學校修了

▲1910년 7월 奉國寺에서 崔荷翁大禪師를 은사로 得度

▲1919년京城佛敎中央學林졸업。己未독립운동시 상해임시정부에참여활동

▲1921년 9월 보배고등학교에서 독일어 라틴어等 修學

▲1922년 南獨 벌쓰불룩대학哲學科入學。古희랍어 獨逸神話史及文明史 天主敎의 의식등 연구

▲1925년 10월南獨逸 벌쓰불룩大學에서「佛敎純全哲學」論文에의하며 철학박사학위 획득하고 귀국

▲1926년 4월 中央佛敎專門學校 교수 被任

▲1945년 조국광복과 동시에 애국단체인 中央工作隊를 지도하여 民衆啓蒙運動을 하고 또 軍政으로부터 李博士에게 정권을 양도하라는 연판장(5만명분)을 結集하여 在東京占領軍사령관및 在韓美軍사령관에게 교부하여 奏效

▲1946년 李博士 중심 建國運動 參與

▲1950년 2월 內務部長官 被任, 7월 內務部長官 辭任

▲1951년 2월 韓國鑛業振興株式會社 社長 就任, 10월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 就任

▲1952년 副統領立候補

▲1953년 8월東國大學校 總長就任

▲1954년 5월 財團法人 東國學院 理事長 就任

▲1955년 大光油脂株式會社 社長 就任

▲1956년 5월 副統領立候補

▲1962年 경기도부천시소사동山66번지에서 會衆修道

▲1968年 金剛般若波羅蜜經 持誦用출간

雪嶽山서 無事故등반 기원

山岳祭에 1백50명 參加

10月3·4日 山行으로 和合도모

山岳人들의 무사고등반을 기원하는 제14회 동국산악제가 10월의 첫 連休기간인 3·4양일간에 걸쳐 설악산 內雪嶽 가야동계곡에서 거행되었다。모교 鄭在覺총장、동국산악회 崔榮植회장을 비롯 동문·교직원 1백50명이 참가한 이번 산악제는 해발1천2백여m의 백담계곡을 거쳐 가야동계곡에서 鄭총장과 崔산악회장을 제주로 朴聖昊 (前모교경리과장) 씨의 집전아래 의식이 진행되었다。

이번산악제는 3일오전10시 스쿨버스로 모교를출발 홍천·인제를거쳐 한계령을 관광한다음 숙박지인 외가평에서 캠프화이어를 즐겼다。이어 다음날인 4일의 일정은 외가평을출발, 백담사에서 15㎞에달하는 백담계곡을거쳐 가야동계곡 (천황문) 코스를 登行하였는데 70고령의 鄭총장이 노익장을과시하여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받았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부부동문들이 대거참가하여 단풍관광을겸한 산악제의 의의를 드높이기도 했다。

惠東구락부 創立

專門部중심 회장에 李喜春동문

◇李喜春 회장

49년 전문부및 52년학부 출신들의 친목모임으로「惠東俱樂部」가 지난9월30일 출범을 보았다。

대학·학과별 단위모임가운데 혜문회 다음의 선배계층 모임이 되고있는 同會는 이날 金殷夏 金鎭福 愼京勳동문등이 참석한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李喜春동문을 회장으로 뽑는등 임원선출과함께 회칙을 통과시켰다。

同會는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를 열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장학회구성등의 목적사업도 회칙에 명기하고 있다。

▲고문=金殷夏 鄭在哲 ▲회장=李喜春 (하이아트호텔사장) ▲부회장=兪賢穆 (영화감돈)、王표淳 (송곡여고교장)、池昌勳 (前홍익회감사) ▲감사=李耕勳 (경성비니루代表) ▲상임이사=孫鐵洙

西獨지부 定總열어

年會費 3백20마르크 送金해와

◇在獨 북부및 中部회원들이 총회를마치고 WINTERBERG에서 기념촬영 (8월23일)

在獨동우회 (회장=崔贊基) 年例정기총회가 지난8月21~23日까지 중부지역휴양지인 빈테르부르크에서 30여명의 회원및 가족이참석한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열려 異國땅에서의 뜨거운 東友愛를 나눴다。

崔회장의 경과보고겸 人事말로 시작된 定總은 새 회장단구성과 각지구별간사선임에 이어 사업계획을수립하는 한편、본부 동창회와의 유대긴밀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자리에서는 본부동창회에로의 年會費납부안을 上程、1人當 10마르크씩 3백20마르크를 送金키로 의결했다。

한편 在獨동우회의 年會費는 9月21日 본회사무국에 도착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는 또 유럽지역에 유학할 후배들을 위한 정보제공등에 최선을 다할것등을 다짐한 뒤、회원상호간의 친목을도모하는 여흥으로 3일간의 휴양을 즐겼다。

▲회장=崔贊基 (56법학) ▲부회장=李濟一 (60화학)、韓永煥 (59화학) ▲총무=金吾雨 (76경영) ▲간사=車壽連 (68경영·마아부르크)、李完熙 (64경제·쾨른)、윤채중 (77경영·디젠바흐)、朴鍾勳 (76정외·하이델베르그)

經營學科

장학금 45만원지급

經營學科동우회 (회장=成百幸) 에서는 제2학기장금으로 45만원을 同科후배인 김영태君등 3명에게 지급했다。

장학금은 10月8日 오후 2시 吳德永경상대학장、趙熙榮총무처장、경영학과교수등이 배석한가운데 경상대학장실에서 成회장이 직접 전달했다。이자리에는 경영과동우회에서 鄭虎雄부회장과 윤진호 정문섭동문등이 참석했다。

◇수혜자명단=김영태 (4년)、이종구 (3년)、정승현 (2년)

金熙泰교수 歡送宴성료

農學科、恩師功德기려

農學科동창회 (회장=柳周馨) 주최「농학박사 金熙泰교수 정년퇴임기념위로연」이 지난 9월26일 (토) 오후5시 모교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모교에서 25년여를 後學양성에 진력하시다가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한 金교수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이 위로연에는 농학과졸업생및 재학생 1백50여명이 참석、위로의 말과 변함없는 건투를 기원했는데 金교수는 퇴임인사를 통해『세월의빠름을 이제야 실감하는것같다』며『농학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여러분도 이러한 사명감을 잊지말고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柳회장은『퇴임은하셨지만 계속 후학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로연은 尹天泳부회장 사회로 李舜柱부회장의 恩師약력소개、柳회장의 기념패전달、全淳杓부회장의 기념품전달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기념품은 純金 행운의 열쇠 (10돈) 등을선물했다。濟州·木浦등 지방동문들까지 참석、師弟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정담을 나눈 이날 위로연은「고향의 봄」「이별의 노래」합창으로 휘날레를 장식했다。

停年退任歡送
장소: 교수회관 동국대학교 농학과
◇金熙泰교수 정년퇴임 歡送宴에서 農學科 동창회 任員들이 기념촬영했다。

명부 配布

忠南支部 任員會

忠南지부 (회장=權五旭) 6月 정기이사회가 임원 20여명과 3개市·郡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9일 대전시내 미정회관에서 열려 지부운영 활성화방안등을 모색했다。

同지부 임원인 具壽榮 (49전문·忠南大교수)·申允杓 (65행정·숭전대교수) 동문의 해외출국 환송회를 겸한 이날 임원회에서는 또 최근 제작한 회원수첩을 배포하기도 했다。

江陵지회 定總

鄭義昌회장 留任되어

◇鄭義昌 회장

江陵지회 정기총회가 지난8월29일 회원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鄭義昌 (60영문·명륜중고교장) 회장을 유임시키고 총무에 崔明圭 (63생물·명륜중)、金光來 (73경제·세광가구대표) 동문을 선출했다。이날 총회는 그간의 경과보고와 오랫동안 침체된 활동을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하는한편 학창정담으로 즐거운시간을 보내었다。

공인會計士會

에어컨 1대기증

공인會計士출신들의 모임인 회계사동우회에서는 지난8월5일 무더위속에서도 여념이 없는 후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에어컨1대를 구입、회계사반에기증했다。

同에어컨은 鄭達泳 朴忠煥 尹泰俊동문등 20여명의 회계사동문들이 성금을 마련、모교 尹鍾安교수 (회계사)를 통해 전달되었다。

商友會월례회

黃龍浩회원歡迎도

商友會 (商學科1회·회장=朴時賢) 월례모임이 지난 29일 무교동 삼원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近況을교환하며 우의를 다졌다。

黃龍浩 (모교教授·滯美) 동문의 일시귀국 환영을겸한 이날 모임에는 15명이 참석、同會발전및 모교발전에 적극 기여할것을 다짐하며 뜨거운 동우애를 나누었다。

南加洲골프

23명參席코스즐겨

美南加洲 (LA중심) 동우회 (회장=金基成) 제5회친선골프대회가 지난8월15일 32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디멜 컨트리클럽에서열려 상호친선을 도모했다。

▲메달리스트=임향근 ▲챔피온=장무웅 ▲1등=김병식 ▲2등=김창섭 ▲롱기스트라이버=오영환 ▲행운상=김진

興國생명 定總

회장에 柳國衡동문

興國生命동우회 정기총회겸 신입사원환영회가 지난 8월27일 영등포 N음식점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柳國衡 (64상학·재산운영부장)、총무에는 金銀榮 (72법학·종합기획실대리) 동문을 선출하는 한편、신입회원 3명에대한 환영순서등을 가졌다。

3百餘萬원 모금

經營科 奬學基金조성 拍車

1천만원 奬學基金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영학과동우회 (회장=成百幸)는 9월말현재 3백여만원을 모금했다。

오는 년말까지 5백만원 모금을 목표로하고 있는 同會는 각기별 중심으로 현금、또는 서명약정금을 받고 있는데、연락처는 成百幸회장사무실 ((53)2251~2번)이다。

9월말 현재 모금현황은 다음과 같다。

◇1回 ▲趙熙榮=20만원 ▲金容均=20만원 ▲李英淵=20만원 ▲李昌圭=20만원 ▲沈載錄=20만원 ▲黃在成=10만원 ▲朴昌玉=10만원 ▲韓萬濟=5만원 ▲李英夫=5만원 ◇4回 ▲成百幸=1백만원 ▲尹堤炳=10만원 ▲李忠烈=5만원 ▲李文炯=5만원 ▲鄭德淳=5만원 ◇5回 ▲鄭虎雄=20만원 ▲成仲模=2만원 ◇8회 ▲李鍾泰=5만원 ◇9회 ▲鄭文燮=5만원 ◇12회 ▲曺廷海=10만원 ◇13회 ▲朴榮錄=5만원 ◇14회 ▲李相潤=5만원 ◇15회 ▲劉楊勳=3만원 ▲김윤영=3만원 ▲金炯潤=2만원 ▲黃政賢=1만원 ▲梁禧喆=1만원 ▲鄭亨基=1만원 ▲金英鎭=1만원 ▲이재현=1만원 ▲李寶相=5천원 ▲兪相浩=5천원 ▲金台石=5천원 ◇19회 ▲許議道=1만원 〈合計3백18만5천원〉

病床 浪동문돕기慈善展

趙靈岩동문주선 仁川지부 주관

病床의 시인 浪承萬 (59국문) 동문을 돕기위한 靈岩詩書細筆草書展이 仁川지부 (회장=孟殷在) 주관으로 지난9월24~30일까지 仁川시내 內洞 은성다방에서 열렸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1년8개월째 외로운 鬪病生活을 계속하고있는 在仁시인 浪동문을 돕기위한 이번詩書자선전은 詩書및 草書병풍들을 내놓은 趙靈岩 (44혜전) 동문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한편 同자선전은 本會와 東國文學會、普覺禪院등이후원했는데 浪동문은『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기위해좋은 시몇편 꼭남기겠다』고 다짐했다。

臺灣 玉山등반

12月경 山岳會서

東國山岳會(회장=崔榮植)는 오는 12월중순경에 대만 옥산 (해발 3천9백97m) 해외원정 등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원정프로젝트는 등산비용및 일체경비가 참가자부담으로 山岳會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기간은 7박8일 (예정) 이 되고 있다。

東國山岳會가 원정하게될 玉山은 대만의 거의 中央척량산맥의 중심에있는 대만제1의 高山으로 산록의 熱帶로 부터 暖帶 溫帶및 頂上의 寒帶까지 共存하는 名山이 되고있다。

한편 연락처는 산악회부회장 林信喆 ((723)0443~4)、이사 吳仁煥 ((776)8001~2) 동문이다。

救農체전 10月18日개최

모교체육관서 가족동반으로

救農東友會(회장=沈載益)이사회가 지난10월1일 權五甲회원댁에서 열려 救農복지기금운영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沈회장을 비롯 역대회장들과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기금확충과 가족체육대회 개최등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들은 구농가족체육대회를 오는 10월18일 (日) 오전10시부터 가족동반으로 모교 실내체육관에서 갖기로 하고 경기종목은 배구 피구 오락게임등으로 다채롭게 진행키로했다。

한편 基金확충문제는 현재적립된 기금의 관리철저와 뜻있는 동문들의 참여유발로 增額해나가기로 했다。

會長團, 白博士빈소 合同분향

추모비건립금 1백만원전달

白性郁박사 열반소식에접한 본회 회장단은 지난 9월17일 오후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 自宅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합동 분향、故人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崔載九명예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감사 포함) 은 분향을 마친뒤 故人의 업적을 기리기위한 추모사업을 논의、추모비건립기금으로 1백만원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한편 白博士의 빈소에는 金殷夏동문을 비롯、평소故人과 가깝게 지냈던 동문들이 줄을이었다。

安啓賢 박물관장

심장마비로 別世

모교博物館長인 安啓賢(52사학) 동문이 지난 9월7일 정오 용산구 龍門洞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향년55세。

正確한 住所를 주세요

지금 당신의 住所는 정확합니까? 會報가 주소 不明된채 每回3백여부가 主人을 찾고 있읍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위동문의 住所를 알려주십시요。 주소를 모르면 職場이나 電話番號만이라도 좋습니다。

연락처 : 모교학생회관1층 東國大學校同窓會 ☎267－8568, 267－8131 (교)465

국회豫決委員長 鄭在哲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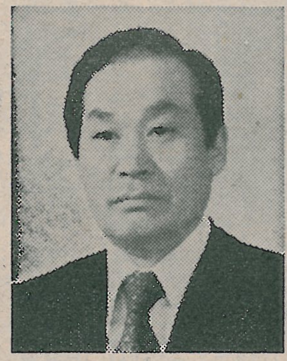
본회 鄭在哲(52정치) 회장이 9조5천9백56억원의 82년도 정부예산안을 다루는정기국회의 豫決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5공화국 첫 정기국회에서 중책을 맡게된 鄭동문은 20여년간 財務部·金融기관에 몸담아와 여당인 民正黨內제1의 재정통으로 손꼽히고있다.

『예산심의의 관건은 國民이낸 稅金을 어떻게 짜임새있고 유익하게쓰느냐』에 있는만큼『보다효율성있는나라살림이되도록 全力을다하겠다』고 다짐한다.

對人관계 원만한 黨內財政通

“國民稅金 유익한活用 최선”



『國民이낸 稅金을 어떻게 有益하게 쓰느냐에 全力을 다할것』을다짐하는 제5공화국 첫국회의 豫決위원장이된 鄭在哲본회회장。

『새해예산 심의원칙은 예결위원들과 상의해야 겠지만 정부시책인 안보강화와 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 확대에 중점이 주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기도 하는 鄭동문은『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에서 심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또한『예산이 미치는 영향은 物價安定과 景氣조절面까지도 파급됨으로 결코 소홀히다룰수없는일』이라고 강조한다。

鄭동문은 재무부의 기획관리실장시절 국회활동에서 탁월한 솜씨를 보인바있는 이분야의 베테랑。

원만한 對人관계로 발이넓고 두뇌회전이 빠르다는 評을 받고있는 鄭동문은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에다 매사에 빈틈이 없는것도 특징이 되고있다。

55년 육군대위예편、57년부산여자초급대 부학장、62년보사부 公報官、69년 전매청차장、73년 재무부기획관리실장、75년 한국산업은행부총재、76년 信用보증기금 이사장、79년 한일은행장、81년 民正黨 재정위원장등 鄭동문의 이력은 學界·官界·금융계·정계할것없이 다방면에서 돋보여「마당발」이란는 별명까지붙기도。

한편 鄭동문은 지난 5月9日 본회 제11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동창회살림을 맡고있는데 동문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장학사업 구상등「살아있는 동창회」를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

75년 紅條勤政훈장、81년 銀塔産業훈장을 받은 鄭동문은 골프가 취미이며 동국인들의 골프클럽인 東綠會회장을 맡고있기도 하다。

錢金周여사 사이에 1男2女를 두고있다。

老童테니스 單·複式우승

朴濟吉동문

朴濟吉(49전문·韓一銀行조사역)동문이 제14회 전국老童테니스 大會의 1부 單式·複式서 우승、대회 첫 우승과 함께 2관왕이 되었다。

지난 9월27일 장충코트에서 폐막된 대회 최종일 1부단식(50세~60세)에서 朴동문은 3연패를 노리는 상대방은 물리쳤으며 복식에서도 老益壯을 과시、우승을 따냈다。

강원 横城郡教育長 영전

柳興秀동문

柳興秀(52영문)동문이 강원도教委장학관에서 횡성군교육장으로 영전되었다。

30년가까이 도내 中高校에서 後學들을 길러온 조용한 성격의 전형적 교육자로 국민포장까지 받은바있는 柳동문은『일선책임자는 처음이라 어깨가 무겁다』고 겸손을 보인다。

柳동문은 고향이 횡성으로 횡성농고、갑천중교사、횡성중교감(69년) 갑천고교장(75년) 횡성綜高교장(77년)을거쳐 道교위인사담당 장학관으로 발탁되었다가 이번에 고향의 教育長으로 금의환향했다。

〈서울특별시〉

▲李泳和(54법학)‖교통국장에서 세종문화회관관장으로 전임되었다。

지난 79년에도 세종문화회관장직을 맡은바있는 李동문은『지난번 在任때의 경험을 살려 문화예술의 창조발전 산실이되도록 운영의묘를 살려나가겠다』고 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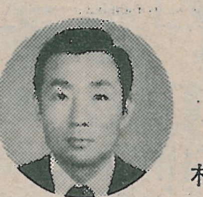
▲姜炳壽(57정치)‖공원녹지 국장으로 환경국장을 겸임하게되었다。

「푸른서울、쾌적한서울」의 산파역이된 姜동문은『깨끗하고 정돈된도시、질서있고 공해없는 도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

재학시 총학생회장과 桑港·LA한인회장등을 역임했던 李동문의 전부를 밝힌동저서의 출판기념회에는 본회 文明麟 柳周馨 禹國一부회장、金準鏞前부회장등 50여명의 동문과 1백20여명의 축하객들이 참석、성황을 이루었다。

국제觀光公社기획실장영전

朴鍾在동문



朴鍾在(59경제)동문이 국제관광공사 기획실장으로 영전되었다。

朴동문은 同공사 기획예산과장과서울市지사부지사장、김포영업소장등을 역임해오면서 관광산업의 개발·홍보에 一益을 다해오고있다。

와싱턴에 우래옥 分店개업

張振建동문

뉴욕에서 한국식당 우래옥을 경영하고있는 張振建(50·사학)동문이 이번에는 백악관 근처 와싱턴DC에 우래옥분점을 개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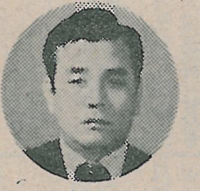
뉴욕 3백50석보다 1백50석이 더 많은 5백석의 대규모 식당을 자랑하는와싱턴분점은 한국 교포보다는 오히려 미각을 즐기는 미국사람들이 많이 애용해 성업중에 있다고。

한편 張동문은 뉴욕지부장을 맡아 뉴 으로、영전。

宇開發을 새로차리고 공동대표에 취임했다。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갖고 있는 보험의 대행업인 同社는 한국자동차보험、안국화재해상보험、대한보증보험의 대리점으로 각종 損保상품등을 취급하고있다。

地上5층의 東珍빌딩竣工

金銘善동문



金銘善(61경제·東珍織物사장)동문이 종로4가 로타리 동대문경찰서앞에 東珍빌딩을 신축、지난25일준공식을가졌다。

同빌딩은 대지2백여평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추었다。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최재구명예회장、정재철회장을 비롯、문태식 홍봉래 유주현 문명린 김동정 우국일 맹은재부회장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테프를 끊고 金동문의 사업확장을 축하했다。

〈韓國投資信託〉

◇鄭龍談동문

▲鄭龍談(61경제·大邱支店長)‖1급으로 승진。

▲姜斗錫(69경영)‖영등포지점次長에서本社 총무부次長

同門動靜

〈無順·敬稱略〉

本人의 近況이나 주위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으시면 언제든지 提報바랍니다。

세업부 一線에 발을 딛은 崔동문은 順川·麗水·西光州·群山세무서장등을 차례로 역임해왔다。

自然보호 國民勳章받아

劉昌瑞동문

설악산을 지켜온 山사나이 劉昌瑞(62경제)동문이 자연보호헌장선포 3주년을 맞아 國民勳章 석류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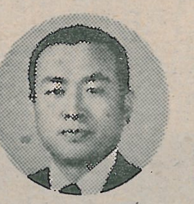
權金山莊관리인으로 지난 10년간 설악의 파수꾼역을 도맡아온 劉동문은 69년 이곳 설악산에 들어와 조난자구조、자연훼손사범계도、천연자원보호등에앞장서왔다。

설악의「털보」、또는「곰」으로 더 잘 알려진 劉동문은 그동안 멸종됐던 것으로 여겨졌던 에델바이스 서식지 5개소를 새로 발견해냈고 크낙새와 까막딱다구리의 서식처를 찾아내는데 공헌했다。

또 지난해 10월 단풍철에는 自費로 자연보호 리본 1천개를 제작、관광객들에게 나누어주는등 劉동문은 敬長의 산지기 역할에 큰 보람을 찾고있다。

崇田大지역개발大學院長 취임

申允杓동문



申允杓(65행정)동문이 崇田大 지역개발대학원장에 취임했다。

申동문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0여년간 새마을담당교수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3월 숭전대 法經大교수로 부임했으며、지역개발및 새마을운동의 이론체계 정립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東京大를 나와 행정고시위원、총리실자문위원등을 맡기도한 申동문의 저서로는 新行政學·새마을운동理論·地域開發論등이 있다。

瑞逸工專전자工學科長 부임

沈光輔동문

沈光輔(62物理)동문이 瑞逸공업專門大전자공학과장으로 영전되었다。

모교 外國語教育院에서 15년여를 봉직、재학생들의 어학실력향상에 뒷바라지를해온 沈동문은 모교및 상명여대에서 전자공학강의를 맡기도했다。

榮進·轉補

▲申定淳(64행정)‖한국외환은행 업무부次長으로。

▲李殷甲(74경영)‖한일은행 카나다 토론토사무소 所長代理로。

▲申亙永(73법학)‖라미화장품(주)영업부 特販1과장으로。

▲金衡均(74불교)‖대한선주(주)홍보과에서 삼익상선(주)총무과장으로。

▲羅聖奎(65상학)‖제일은행 여의도지

지난 9월8~26일까지 유럽과 美洲지역의 제약업계 현황을 살피는 한편、기술제휴사와 신제품개발및 의약품 수출입업무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귀국。

▲徐京保(51佛教·一鵬禪院長)‖10월9일 日本 京都에서 열린 韓·日佛教친선대회에 참석한뒤 美國으로 건너가 약 2개월간 포교활동을 벌일 예정。

▲禹順伊(59정치·대영실업 사장)‖9월29일~10월7일까지 여성경제인협회시찰단으로 渡日。

▲金富榮(58영문·仁川高교사)‖지난7월10~8월10일까지 문교부추천으로 해외연수차 뉴욕 L·A 시카고등 美州지역을 다녀옴。

▲趙在浩(65불교·학교법인東國學院사무국장)‖10월5~27일까지 약20일간 뉴욕 와싱턴·샌프란시스코·하와이등 美洲전역을 돌면서 교육계를 시찰。귀로에는 東京에 들려 日本의 교육계도 살펴볼 예정。

▲任香根(65경제·美LA올림픽부동산학교장)‖업무차 일시귀국했다가 약10일간 체류하고 지난9월14일 出國。

教授動靜

▲鄭在覺총장‖9월5일 성북동 자택서 喪配。

▲申宗淳(경주대학장)‖9월30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택서 母親喪。

▲김성배(사범대)‖10월9일 535돌 한글날을 맞아 청주·충주에서「한글과겨레의 갈길」에 대하여 강연。지난 여름 방학중엔 ○○사단등에서「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순회강연을 가진바도있다。

▲金生彬(토목과)‖지난8월20일 일본 동경공대에서 1년간의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국。

▲李文輔(건축과)‖일본대학에 연구활동차 지난8월20일 출국。

▲尹柱億(식공과)‖일본 오오사까대학에서 연구활동을 마치고 8월25일 귀국。

▲辛孝善(食工科)‖美國 미시간주립대에 1년간 연구활동차 지난8월20일출국。

▲黃龍浩(경상대)‖美S·오리건大學교환교수로 1년간의 연구활동을 마친뒤 이번 학기부터는 와싱턴大學으로 轉籍、연구활동을 계속할예정。黃교수는 지난 9월21일 연구기간 연장 및 私務次 일시 귀국했다가 10월14일다시 出國했는데 와싱턴에서 약 1년간 체류예정。

▲金正梅(영문과)‖7월4일 부터 31일까지 英國Nottingham대학에서 개최한 섬머스쿨에 참가하고 영국 교육계를 둘러본뒤 귀국。

▲韓明希(教育學科)‖지난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뉴우지일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세계교육자총연맹(WCOTP)제8차 아시아·남태평양 지역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고 귀국。

▲權奇종(불교대)‖日本大正大學 교환교수부임차 지난9월25일출국、1년간 체류예정。

▲吳京煥(미술과)‖9월15일부터 82년8월31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이유대학으로 학술연구차 출국。

▲洪錫强(수교과)‖지난 9월10일 美오클라호마 주립대학원에서 1년간

祝

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金馬物産(株)
대표이사 朴養源

建扶建設(株)
회장 崔大熙

三現체인(株)
대표이사 許五澤

平和産業(株)
대표이사 金北喆

信興印刷(株)
대표이사 朴忠一

한영貿易(株)
대표이사 韓永輝

서울旅客自動車(株)
대표이사 李鍾善

한국테프론공업(株)
대표이사 洪錫橋

영신금속(株)
대표이사 千泰增

「푸른서울, 쾌적한서울」의 산파역이된 姜동문은『깨끗하고 정돈된도시, 질서있고 공해없는 도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

▲皮尙鎭(62임학)=양묘사업소장으로.
▲金 實(64임학)=종로구청 녹지과장으로.
▲崔鍾文(58임학)=어린이대공원기술담당관으로.
▲趙南天(65임학)=남서울대공원 공사계장으로.
▲金秀元(59국문)=양묘사업소과장으로

한국電力성동支店長 영전

韓 暢 錫 동문

韓暢錫(55경제) 동문이 韓國電力(주) 청주지점장에서 성동지점장으로 영전되었다.

安養관광호텔 곧 開館

회 장 洪 正 烈 동문
전무이사 閔 慶 鳳 동문
총지배인 李 裕 寬 동문

洪正烈(79經院) 동문이 會長, 閔慶鳳(65법학) 동문이 전무이사, 李裕寬(65국문) 동문이 총지배인으로 세동문이 트리오가 되어 운영하게될 안양관광호텔(株·長宇)이 오는 10月19日 개관된다.

안양시 석수동 안양유원지內에 자리잡은 同호텔은 4층짜리 1급호텔로 81개의 객실을 갖추고있으며, 부대시설로 韓·洋식당, 회의실, 커피숍, 나이트클럽, 스카이라운지등이 있다.

自傳출판기념회 열어

李 敏 輝 동문

李敏輝(56정치) 동문의 自傳인「李敏輝의 길」 출판기념회가 10월6일 오후6시 도큐호텔 25층 파노라마홀에서 열렸다.

욕지부 활성화, 재학생 장학금 지급, 본부 동창회장 초청등에 앞장서오고있기도.

保險대리점 世宇開發 설립

鮮于 鎭동문
尹 天 泳동문

鮮于 鎭(59경제) 동문과 尹天泳(65농학) 동문이 각종보험업무를 취급하는 世

▲李相郁(69법학)=감사실검사역으로.
▲姜錫永(72경영)=비서실 비서역에서 청량리지점 次長으로 승진.

全州稅務署長으로 轉任

崔 達 元 동문

崔達元(64상학) 동문이 全州稅務署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국

▲金衡均(74불교)=대한선주(주) 홍보파에서 삼익상선(주) 총무과장으로.
▲羅聖奎(65상학)=제일은행 여의도지점 차장에서 同충무로지점 次長으로.
▲金載炫(77 농경)=보험대리점업인世宇開發업무과장으로.

出入國

▲李宗鎬(58법학·대한중외제약社長)=

학술연구차 출국.
▲洪錫强(수교과)=지난 9월10일 美오클라호마 주립대학원에서 1년간 통계학 학술연구를 마치고 귀국.
▲全榮華(美術科·동양화가)=9월26~10월8일까지 안국동로타리 百想기념관에서 개인작품전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전시회는 歐·美·日초대순회를 앞둔 기념전의 성격을 띠었다.

종합병원 東國病院 설립자

秋 東 憲 동문

全東國人과 가족에게 30%할인

"國民건강 이바지 보람느낄터"

東國人의 긍지를 심을 필요를느껴 東國病院으로 命名했다는 秋東憲동문。

『사회에 봉사하고자하는 평소의 꿈을 이루게되어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문을 여는 종합병원인 東國病院의 설립자 秋東憲(65대원) 동문—。

『지난해부터 가족친지와더불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모색한끝에 전재산을 털어 병원을 세워 값싸고 친절한 施療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생각했지요』라고 말을 잇는 秋동문은 이를위해 이해타산을 떠나 의료취약지구인 도봉구 수유동 세일극장 맞은편에 자리를 정하는동 고심이 컸다고 실토한다。

뿐만아니라 病院名도 개교75주년을 자랑하는 모교에부속병원 하나도 없는데착안, 떳떳한 東國人의 긍지를 심을 필요를 느껴「東國病院」으로 命名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東國病院은『모교의 부속병원과 같은 차원에서 東國人과 연관을 갖고 싶다』고 말하는 秋동문은『우선 학생·동문·교직원등 全東國人과 가족에게 30% 할인혜택을 주기로 동창회와 협의했다』고 東國人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잊지않는다。

학생은 학생증 제시로, 동문은 동창회의 확인으로 할인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하는 秋동문은『신진氣銳의 의료진으로 최선의 시술과 신속·알뜰한 봉사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東國病院은 건평 400평에 지하1층 지상6층의 1천여평에 입원실이 130여개인 현대식건물로 일반內科 일반外科 産婦人科 小兒科 整形外科 神經外科 마취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치과등의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각분야별로 전문의를 초빙하였다。

同병원은 지난 10월12일 11시 本會 최재구명예회장등 1백여명의동문들과최영철國會보사위원장등 2백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한가운데 개원테이프를 끊고 진료를 시작했다。

秋동문은 72년부터 본회 이사와 自保東友會 고문으로동창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있는 열성동문이다。

結婚

▲李明馥(49전문·대한교육보험 상임감사)=9월21일정오 천도교예식장에서 장녀 結婚。
▲崔世和(56국문·모교사범대학장)=9월26일 오후2시반 천도교예식장에서 영애 결혼。
▲元鍾奭(76경제·사업)=10월19일 오전11시 영등포로타리 中央예식장에서 本人화촉。
▲文京燁(77법학·한국상업은행 청계지점)=10월3일 오후1시30분 光州 현대예식장에서 本人 화촉。
▲柳淇奉(70농학·매일경제신문영업국)=11월8일정오 퇴계로2가 LCI예식장에서 本人화촉。

其他近況

▲李政龍(52국문·和順신농중교장)=제7회 赤壁藝術祭를 주관, 향토문화발전에 기여。
▲韓昌造(79행원)=79년 國展 대통령상수상 造刻家로 제4회 개인전을 지난 8월25일~9월3일까지 시내 仁寺洞 選화랑에서 가짐。

東國의 傳統

〈29〉

—論著를 中心으로 整理해본—

哲學 (完)

「哲學思想」續刊등 전통繼承 아쉬워

「比較哲學연구소」設置 이뤄져야

◇哲學科의 主體的활동

모교 哲學科에서는 科단독으로「哲學思想」을 발간해오고있다。1970년 韓相璉교수가 주임일당시 學生들의 힘으로 창간호가 발간되었는데 이때는 忍齊 金炳奎교수님의 華甲기념논문을 실었다。창간호의 목차를보면 鄭종교수의「哲學의 大衆性」韓相璉교수의「西洋哲學과 韓國哲學과의 비교연구」尹明老교수의「學으로서의 哲學과 Aperetik의 意義」金鎔貞교수의「Kant의 가족윤리」등이 게재되어있다。이 哲學思想은 동문들의 협조로 1974년 第4輯까지 발간되다가 1975년도부터는 여러가지 여건에 의하여 중단되고있다。

앞으로 哲學思想의 續刊이 철학과의 전통계승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母校哲學科에서는 1960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40여명의 碩士를 배출하였으며 박사는 尹明老·崔明官·金奎榮·鄭종·金鎔貞·문형만(전남대교수)·최재근(전남대교수)·宋錫球(동대교수)등 8명이 나왔다。

碩士學位의 전공별로 보면 西哲25명이고 東哲및 기타가 14명이다。박사학위는 西哲 7명, 東哲1명이다。현재 동문은 24회로서약6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각방면에서 종사하고있다。

◇傳統의 繼承과 展望

이제까지 본인은 많은 오류를 犯하면서 이 글을 쓴것을 自認한다。특히 자료부족으로 이글을 쓰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그러나 한세기의 1/4인 한 세대를 지내온 본교 철학과에 대한 전통의 문제를 누군가는 한번다루어 놓아야 할것이라는 點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지금 우리의 現住所는 어디고 이현주소에 얼마나 안락한 生活條件과 후생시설을 하여 놓았는가를 마치 겨울채비를 하는 가정부 모양 우리의 뜰과 집안을 살펴보아야 하리라는 것을 느껴왔었다。이 글을 쓰는데 本人이 적격이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대로 이 청탁을 맡은것은 나자신을 돌이켜보자는데있었던 것이다。

솔직이 지금 우리는 전통의창조를 始作하고 있는 中이다。우리 哲學科는 이제까지 보았던바와 같이 그 初創期로부터 自然 金龍培교수와 金斗憲교수를 통하여 1940년대부터 본대학의 哲學課程이 개설되었던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1953년 철학과가 개설되었지만 그역사는 1940년도부터 소급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그러한 입장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自矜하여야 한다。그러나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오직 발전되었다고만 볼수 없는 것이다。

그 전통에는 책임이따라야한다。그러나 本校의 哲學科는 自然 金龍培교수의 의지와 함께 東·西洋 佛敎까지 이수할수있는 비교철학의 터전을 공고히 다져놓았고 또 그 반석위에 오늘까지도 철학과가 운영되고 있음도 사실이다。그렇다면 이러한 훌륭한전통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것인가。

오늘날의 학문의 연구는 東洋만, 西洋만, 불교만, 기독교만을주장하는 소위 단독적인 一方通行만을 강요하는 추세에있지는 않다。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식의 綜合속에서「나」의 位置를 자각하여야한다。

나의 자각은 佛敎나 儒學이나 서양철학이나 어느 학문에서도 强調되는 바이다。따라서 언어적 장벽을 깨뜨리고 人間의 순수한 알맹이를 서로 보여줄수있는 상호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그리고 그들의 고유한철학과 사상을 긍정하고 새로운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사상의 기초가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것을 알고 남을 아는 자각이 선행되어야한다。따라서 적어도 哲學科가 중심이되는 비교철학연구소가 발족되어야한다고 본다。그것이 우리철학과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한우리철학과의 특성이 드러내지는길이라고 본다。그런의미에서 80年7月에美國뉴욕대학철학과의초청으로 도미하여 1年間 뉴욕주립대학및 콜롬비아대학에서 비교철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김용정박사의 견문에 기대가크다。

이제부터 걸음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보여진다。

이글이 주관적으로 흐른면이 있음은 전적으로 筆者의 責任이고 이것을 기폭제로 東大 철학의 학통의 유지와 學派形成의 정초가 되기를 바랄뿐이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인간이 이 지구상에 存在하고 있는한, 비록 철학에 돌팔매질을 할망정 철학은 영원하다。그것은 인간조건이기 때문이다。철학을 사랑할때 그 국민과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되어 왔음은 역사의 산 증거이다。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지금 당장의 물질적 안락, 環境의 편리에 도취될때 우리의 정신은 썩어가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앞으로 본교의 철학과 후배들을 東西洋에 유학시킴으로 우리의 전통은 더욱 다져가리라 믿는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진정한 世界는 아니다。中庸에 말하기를 莫見乎隱이며 莫顯乎微라고 했다。숨어있는 것처럼 뚜렷함이 없고 微細한 것일수록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제 靜中動의 학풍의 계승이 싹트고 있다。

〈編輯者註=지금까지 執筆을 맡아주신 哲學科敎授인 宋錫球동문의 勞苦에 紙上을통해 깊이 感謝드립니다。〉

慶

東友會報의 무궁한

신용기공사
대표 金在泓

삼영기계공업사
대표 金福男
(공인會計士)

五洋企業社
부사장 吳東益

建和商社
(建和工業社서울營業所)
대표 朴吉柱

天一製藥公社
대표 韓相根

풍년식품
대표 金敏秀

産業安全保護裝具
安逸産業社
대표 李戊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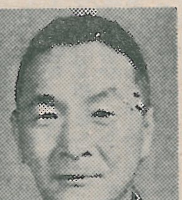
영진종합사무기상사
대표 金三澤

元豊·金屬
대표 金眞植

<停年退任 教授席>

演映科 키워온 元老연극인

李海浪
<文理大演映科교수>



대학의 강단에서는 물론 한국연극무대를 주도해온 원로 李海浪교수는 『연극을위해 온심신을 불태우는 학생들을 두고 교단을 떠나는것이 섭섭하기만 하다』고 정년퇴임의 아쉬움을 밝힌다。

1959년 국내대학으로는 최초로 연극영화과가 모교에 설치되는데 산파역을 맡아 체계적인 교육과 학술연구에 몸바쳐 온지 스물두해 ―。

그 기간 배출해낸 후학들도 부지기수로 착실히 성장하여 이젠 저마다 확고한 위치를 굳혀 나가는 것을 볼때마다 뿌듯한 보람과 함께 내일의 연극중흥에 기대를 걸고싶단다。

젊어서부터 오로지 연극하나만을 위해 외곬으로 치달려온 李교수는 國立극단장、ITI한국본부위원장、예총회장、예술원 회원등 그의 관록이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의 연극을 초창기부터 주도、발전시켜온 연극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다。

그러나 거의 평생을 연극과 함께 살아왔지만『연극예술의 창조에는 완벽성이란없다。』라고 토로한다。아무리 치밀한 구상과 연습과정을 거쳐도 무대에 올려졌을땐 항상 미완성인것 같고 불만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극에의 끝없는욕망때문인지 앞으로 계획은美國으로 건너가서「뉴욕」「액터스 스튜디오」에서 연극에 관한 공부를 좀 더하고 와서 마지막 정열을 연극에 불사르겠다고 한다。

제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李교수는 요즘은 틈틈히 모교 대학원 출강과 평론·에세이 집필등 나름대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있다。

수준높은 演劇창조 계속해

李眞淳
<文理大演映科교수>

『母校가 藝術분야의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많은 인재를 배출해낸 것은 우리나라 예술계의 한 맥을 이루어 온것』이라고 말하는 李眞淳教授는 71년 東國에 첫발을 디딘 이래 10여년을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혹은 소극장무대에서 오로지 연극하나만을위해 함께 호흡하고 함께 땀흘리다 보니 어느덧 정년이 눈앞에 다가와있더라고한다。

1935년 日本大學 예술과를 졸업하고「東京學生藝術座」시절부터 연극에 투신한 이래 46년간을 연극에 몸바쳐온 李교수는 그동안 1백여편의 연극을 연출하는등한국연극계 발전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을 역임、75년「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예술원 회원·국립극장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大學에서의 연극은 실기와 이론을 충분히 승화할수 있어야 하고 아카데미즘자체도 연극속에서 승화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떠나면서 후학들에게 꼭 일러두고 싶다며、예술을 위해서는 자신은 물론 모든 것을 다바칠수 있는 예술인의 자세와 집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퇴임후에는 현재 대표로있는 극단「廣場」의 운영과수준 높은 연극창조에 전념할 것이라며 틈틈히 모교 대학원에 출강할 것이라고한다。

26년여의 講壇生活에 만족

金熙泰
<農科大農學科교수>

55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26년여를 한결같이 東岳에 발걸음을 끊이지않았던 金熙泰교수는『퇴임의 아쉬움이나 섭섭함보다는 담담한 마음으로「자신있게」퇴임에 임할수 있었다』고 최선을다해 후진양성에 노력했던 후회없는 講壇생활을 말한다。

경제구조의 근대화에 밀려 점차 소외되어가고 있는 농업현실에 비추어『大學에서조차 非人氣化되어 가는 農學에 우수한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한다』는 金교수는 다행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農業발전을위해 정진하는 학생들을볼때 결코 어둡지않은 앞날을 바라볼수있어서 기쁘다고 피력한다。

그렇지만 현재 문제화되고 있는 農村청소년의 영농기피현상、또는 農民의 離農현상이라든지 보다 科學化된 영농등의 문제는 후진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여 해결해야될 농학도의 과제이며 따라서農學徒들은 다른사람들보다 훨씬 투철한 사명감과 농촌에 과감히 뛰어들수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것이라고당부한다。

요즘은 창천동 자택에서작은 식물원을 연상할만큼 아담한 화단을 손질하는 일과 매일아침 산보를 즐긴다는金교수는 앞으로 송곡에 마련한 작은농장에서 화초와 나무를 가꾸면서 마지막 여생을 연구생활에 몰두하겠다며『비록 몸은 떠나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東國人과 함께 할것』이라고 말을맺는다。

청룡早起蹴球會 회장 金善興동문

꿈을 키운다

「信念」의 早起會통해 밝은마을 앞장

聖誕日무효소송·舊正공휴일 제창의 장본인

지역敬老잔치등 열어 보람을 키우고

『敬老잔치등 지역사회발전에 솔선하게 되었다』는 青龍조기축구회의 견인차 金善興동문。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도 않은 새벽녘 풋풋한 입김을 내뿜으며 건장한 중장년의 사나이들이 조기축구장으로 모여든다。장소는 관악산 기슭에 자리잡은 관악국민학교。비와 눈이 오는 날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처럼 반복된 일과가 5年이 되었다。奉天·新林동 주민들로 구성된 青龍조기축구회는 金善興(65법화·건설공제조합근무)동문이 빚어낸 피와 땀의 결실이다。

金동문이 이끄는 青龍조기축구회가 여느 조기축구회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국내최대규모의 경노잔치를 열었던 것을 비롯、동네청소·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등 동네의 궂은 일을 도맡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솔선해오고 있는 점이다。뿐만아니라 全冠岳區內 조기축구회를 대상으로 청룡조기회장기쟁탈축구대회를 열어 동호인의 친선을 도모해오고 있는 점도 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5년전 출범시켜

○…青龍조기회의 조직은 金동문이 새벽운동을 나가다 만난 27명을 모아 지난 76년10월1일 축구팀을 정식으로 발족시킨데서 비롯된다。

이웃에 살아도 서로 모르는 이들이 새벽축구팀을 만들어 체력단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발족초반부터 골치아픈 문제가 연일 일어났다。축구를 중심으로 모인 멤버들이라 성격이 한결같을 수가없었고 대부분 거친 편이었다。더군다나 조기회라는 모임의 힘까지 얻게된 이들은 술집에서 행패를부린 것은 다반사였고 아가씨들을 희롱하고 핫팬티바람으로 거리를활보해 부인네들이 질겁함으로써동네 통반장들로부터 해산하라는 항의가빗발쳤다。

또 개중에는 아가씨와깊이사귀다 파탄직전에 이른 가정도 여러집있었고 보면 회장인 金동문으로서는 난감했다。

그러나 金동문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생각끝에 가정을 통해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고 판단、77년5월5일 가족동반으로 남이섬에 놀이를 주선하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프로로 하루를 즐긴 후부터는 인사도 없었던 이웃이 모두 한가족처럼 친해졌고、회원들모 동네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 역력했다。여기서 金동문은 무슨일이든「하면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하면된다」自信感

○…조기회 창립시부터 지난 9월20일 제5주년 창립기념 청룡조기회장기쟁탈축구대회까지 5년간 同회장을 맡아온 金동문의 활약은 단순히 조기축구와 야유회에 그치지 않았다。

현재정회원(25~55살) 97명、명예회원(56살 이상)21명、준회원(20~24살)19명등 총1백37명의 회원을 거느린 同會를이끌어오면서 金동문은 이 숫자면 어떤일도 감당할 수있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산이 많은지역이어서 장마때 많이나는 산사태나 홍수피해를 조기회가 도맡아했다。직장에 나가지않은 회원은 러시아워의 교통정리를하고 아침거리청소는 조기회일과의 한부분이 되었다。동네에 있는 3개의 경노당을 보살피고 청소부·방범대원에게 추석·연말연시면 빼놓지 않고 푸짐한 선물을 주었고、불우한 이웃에 쌀가마를 주고、가난한 학생의 등록금을 납부해준것도 여러차례다。

敬老잔치등 보람

○…그러나 가장 보람있게 인상남았던것은『내부모를 공경한듯 이웃노인을 섬겨야겠다』는 자세로 할아버지·할머니3천여명을 위한 경노잔치였다고 金동문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회원들의 호주머니를털어 지난4월26일 치른경노잔치에는 奉天4·6·7·8·10동 5개동 노인3천여명이 운집했다。공군군악대·의장대와연예인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잔치는 가히 국내최대규모의 경노잔치로 준비기간1달、막걸리6백ℓ、물50드럼、도시락·빵등 준비한 물품들이 동이났다는것。

부단한自己채찍질

○…고교재학시(仁川동산고)부터 축구를 시작、거의 20여년째 축구를생활화해오고 있는金동문。

조기축구를 시작한뒤로 몸살 감기 위장병등으로 앓아 누워본적이 없고、회사에 결근해본적도 없는 金동문은 축구뿐만아니라 그자신의 10가지 생활지표를 정해놓고 실천하는데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다。

①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②나는 봉사적이고 합리적이다。

③나는 근면성실하다。

④나는 인내력과 투쟁력이 있다。

⑤나는 목표가 있다。

⑥나는 나의 능력이우월함을 믿는다。

⑦나는 내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⑧나는 겸손하고 외식을 배격한다。

⑨나는 사랑과 용서를 자랑으로 생각한다。

⑩나는 가정의 平和、사회봉사、그리고 국가에 충성한다。

聖誕日무효소송도

○…金동문은 조기회를 이끌면서「독재자」라는소리를 여러번 들었다。金동문은 자신이 옳다고생각하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성미다。

金동문은 대학원 재학시 聖誕日이「性개방의 날」이라고 주장、소위 성탄무효소송을 냈던 일은 유명하다。

『근본취지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기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金동문은 만일 성탄일이 무효가안된다면 종교자유의 원칙에 의해 佛誕日도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회상한다。

뿐만아니라 金동문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청원권에 의해 舊正의 공휴일 제정을 국가에 청원한바도 있다。구정공휴일지정추진위원장을 5년째 맡고있는 金동문은 우리고유의 명절을 통해 잊혀져가는 백의민족의 전통의식을 되살려보겠다는 의지를 펴고있다。

○…개인회사를 거쳐 건설공제조합에 11년째 몸담아오고 있는 金동문은 강화군향우회 이사장、본회 강화군지회장 등으로 활약해오고 있으며、10男妹中 장남으로 대가족을 뒷바라지해 오고 있기도 하다。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安國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代理店
大韓保證保險株式會社

世宇開發

서울 中區 墨井洞28—9
明星빌딩 206號
(퇴계로5가 충무국교앞)
電話 261—1763 267—3495

新刊소개

「그물레방아 지금도」 김성배수상집

김성배(52국문·모교사범대교수)동문이「그물레방아 지금도」라는 수상집을 펴냈다。

이책은 지난 73년 제1수상집「그은돌같은 따스함인」、제2집「때보의 그림」에 이은 김동문의 세번째 수상집이 되고있다。

이책에는 어렸을적 뛰놀던 고향집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우리의 고유한 풍습과 전통에 대한 향수、나아가 우리의 말과얼에대한 불같은애정이 나타나 있다。<횃불사刊·2천3백원>

「李敏輝 외길」 李敏輝동문

李敏輝(56정치·美LA거주)동문이 自傳的 告白錄인「李敏輝외길」을 내놓았다。

이책은 桑港·南加州한인회장등 在美교포사회에서 많은 활약을 해온 李동문이 유년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걸어온 길을 빠짐없이 엮고있다。

따라서 이 自傳은 선배앞에는 直告가 되며、후배에게는 혹 자신의 인생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게 경고하는 것이며、동지들에게는 자기자신을보여주는 告白이 되는 것이라고李동문은 밝히고 있다。

모교 총학생회장 당시「나무아미타불」하며 야유하는 K대응원단을 單身一喝로 침묵시킨 에피소드、D일보 중계탑에 실린「검은안개속의 주먹보스」記事에 대한 사실한계등의 黑白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이책은「나의 어린시절」「人生道場」「샌프란시스코시절」「이목숨 다하도록」등 全4부로 짜여져 있다。<규장문화사刊·3천원>

「經濟學原論」 金利泰동문

金利泰(61농화·서울시립산업대교수)동문이 전문서적인「經濟學原論」을 엮어냈다。

이책은 도합 11編36章을 구성되어 있는데 1~6편까지는 수요와 공급및 시장가격결정、가격탄력성、分配등의 미시경제이론을 다루고 있으며、7~11편까지는 국민소득수준결정、경기변동과 예측、국제경제등 거시경제이론을 다루고 있다。

金동문은 하와이大에서 경제학석사및 박사과정을 마치었으며、현재서울시립산업대교수로서 모교및 하와이大에 出講하고 있으며、내무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선진문화사刊·6천5백원>

「新羅가요와記述物연구」 林基中동문

林基中(63국문·경기대교수)동문이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은「新羅歌謠와記述物의 연구」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林동문은 지난2月 모교에서「신라가요의 呪力觀念연구」로 文學박사학위를 취득한 바있는데、이책은 신라가요를 불교와 呪力관념의相補관계에서 분석、체계화시키고 있다。

이책은 신라가요와 그記述物의 배경、신라가요와 그記述物、한국의 詩歌와 呪力관념등 4章으로 꾸몄다。<二友出版社刊·8천원>

「地方行政制度論」 沈定根동문

沈定根(64정치·江原大교수)동문이 6번째 저서로 지방행정제도론을 저술했다。

국내의 30여종 文獻과 美·日을비롯한 외국문헌 20여종을 참고하여1년반만에 완성한 力著인 同책은『지방행정의 지금까지의 추세와 현황을 분석·검토하여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摘出하고 그것을 조성하는 방안을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沈동문은 밝히고 있다。

全7장으로 구분된 동책은 연구목적과 범위、지방재정의 의의와변천、지방재정·경비·수입내용과 규모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沈동문은 美클라크大경제학교수 D·J·오트와 A·F·오트共著인「예산정책」을번역출간하기도했다。

「雨水祭」 浪承萬시집

浪承萬(59·국문·詩人)동문이 제3시집「雨水祭」를 내놓았다。

작년1월 고혈압으로 쓰러진뒤 반신불수가 된채 1년8개월여를 鬪病과 가난에 시달려오고 있는 浪동문의 이번 詩集은 申庚林(시인)동문의 跋文처럼「生死의 갈림길에 선 소리」이기도하다。

浪동문은「현대文學」誌를 통해 文壇에 데뷔、그동안「四季의 노래」(70년)、「北녘바람의귀순」(78년)등 두권의 시집과、제3회 反共文學賞수상등으로 중견시인의 자리를 지켜오고있다。

「그래도 이손으로」 方貴姬수상집

方貴姬(81불교)동문이 불구의 몸으로 누구보다도 밝고 아름답게 살아온 告白的수기「그래도 이손으로」라는 책을 펴냈다。

신체장애자로 금년2월 모교 불교대학을 수석졸업하여 화제를 모았던 方동문은 이책에서<불구>를 초극하려는 그의 강렬한의지를담고있다。

이책은 方동문이 돐날 이틀전 소아마비로 두다리와 한팔을 못쓰게 된뒤부터 모교를 졸업하기까지의 처절한 사연과 갈등이 사실적인 고백수기 형식으로 쓰여져있는데 눈물이날정도의 감동적인 내용으로 점철돼있다。<創人社刊·2천3백원>

年會費 납부자 名單

□단체납부분

▲金泉支部 (회장=金珍圭) ＝3만원

▲西獨支部 (회장=崔賛基) ＝3백20마르크

□個人납부분

▲趙重昊 (69행원) ＝1만원
▲呂寅根 (64임학) ＝5천원
▲朴甲淳 (60국문) ＝1만원
▲李昌根 (76체교) ＝5천원
▲愼重錫 (80건축) ＝1만원
▲金煥基 (57정치) ＝5천원
▲金鎭德 (57법학) ＝〃
▲林栢洙 (61국문) ＝3천원
▲宣鍾鉉 (60법학) ＝1만원
▲金聖圭 (60경제) ＝5천원
▲崔燉乙 (58법학) ＝2만원
▲高勳鍾 (70법학) ＝5천원
▲金貞煥 (60국문) ＝〃
▲朴熙珣 (59법학) ＝〃
▲金炯德 (73경제) ＝〃
▲李政龍 (52국문) ＝3천원
▲孫鐵洙 (49전문) ＝5천원
▲金奎滿 (64영문) ＝〃
▲宋英子 (64영문) ＝〃
▲李根陽 (52정치) ＝〃
▲朴文高 (78 무역) ＝〃
▲金東旭 (78 농생) ＝〃
▲鄭泰洙 (73행원) ＝〃

小計 14만6천원
累計 98만9백32원
(3백20마르크별도)

廣告料 납부자 名單

▲張亨植 (62호) ＝2만원

小計 2만원
累計 29만원

◇會長團 分擔金

▲洪鳳來 (53 법학) ＝1백만원
▲文明麟 (54 정치) ＝1백만원
▲柳周馨 (57 농학) ＝1백만원
▲李英駿 (59 법학) ＝1백만원

小計 4백만원
累計 4백만원

理事會費 납부자 名單

◇常務理事會費

▲崔春芝 (57법학) ＝20만원
▲李英九 (80행원) ＝20만원
▲李駿遠 (56경제) ＝20만원
▲平福昌 (58정치) ＝20만원
▲申鉉泰 (57경제) ＝20만원
▲安채蘭 (54국문) ＝15만원 (미납금 완납)
▲黃龍雲 (54경제) ＝5만원 (1部金)

小計 1백20만원
累計 1백25만원

◇理事會費

▲金永河 (58경제) ＝5만원
▲梁海卿 (70대원) ＝〃
▲柳國衡 (64상학) ＝〃
▲朴南奎 (69행정) ＝〃
▲吉 육 (72행원) ＝〃
▲李種錄 (63경제) ＝〃
▲金奎滿 (64영문) ＝〃
▲洪斗杓 (60법학) ＝〃
▲楊文鍾 (63법학) ＝〃
▲李準雨 (72정치) ＝〃
▲南時燮 (58정치) ＝〃
▲朴龍根 (65경제) ＝〃
▲梁正五 (81행원) ＝〃
▲金益謙 (60법학) ＝〃
▲鄭泰洙 (73행원) ＝〃

小 計＝75만원
累 計＝1백16만원

전국 高校재직동문 名單

敎職동문찾기운동 回信도착분 게재

□서울시□

◇대원중고
▲李鍾錫 (53국문)＝교감
▲金鍾然 (80국사교)＝교사
▲全奎奉 (78전산)＝〃
▲朴憲璇 (79철학)＝〃
▲李元泰 (73국문)＝연구부장
▲裵應九 (78사교)＝교사
▲崔源虎 (78사교)＝〃
▲兪興培 (74국문)＝〃
▲李俊鎔 (78법학)＝〃
▲金熙永 (77수학)＝〃
▲安昌海 (76철학)＝〃
▲孫東勳 (75국문)＝〃
▲金泰振 (78사교)＝〃
▲李淵采 (77사교)＝〃
▲愼重喆 (80국문)＝〃
▲許鍾元 (80국교)＝〃
▲全龍基 (79수학)＝〃
▲金容福 (76국문)＝〃
▲秦讚希 (80수교)＝〃
▲韓昇熙 (80화학)＝〃
▲金榮國 (79국교)＝〃
▲李正姬 (78사교)＝〃

◇東洋工高
▲申鳳淵 (58화학)＝敎師
▲丁隆鎭 (61경제)＝〃
▲楊鶴周 (66영문)＝〃
▲李明洙 (69영문)＝〃
▲李正木 (69식공)＝〃

◇祥明女中高
▲裵炫宗 (58국문)＝高校長
▲李鍾敏 (64국문)＝高교사
▲安昌植 (65법학)＝〃
▲崔鍾勳 (68국문)＝〃
▲閔泰國 (68국문)＝〃
▲金顯八 (68국문)＝〃
▲李 錬 (71국문)＝〃
▲李忠吉 (77국교)＝〃
▲李相明 (77국문)＝〃
▲崔淳烈 (72국문)＝2부高교사
▲趙熙天 (77국문)＝〃
▲張斗秀 (77국문)＝〃
▲鄭昌憲 (79국문)＝〃
▲金윤환 (43불교)＝中教師
▲南宮銓 (49문학)＝〃
▲金慶泰 (59영문)＝〃
▲朴雨一 (65국문)＝〃
▲金鶴進 (76국문)＝〃
▲金熙泰 (77사학)＝〃
▲朴桂官 (81국문)＝〃
▲金珞榮 (81사학)＝〃

◇淑明女高
▲崔在曜 (50국문)＝교사
▲李禮和 (51국문)＝〃
▲朴奇鴻 (58사학)＝〃
▲曹星煥 (56정치)＝〃

◇崇義女高
▲李政秀 (70영문)＝교사

◇新京女商
▲李炳鐵 (61법학)＝교사
▲김기완 (61국문)＝〃
▲林勇澤 (71상학)＝〃
▲洪斗杓 (78체교)＝〃

◇信光女高
▲李炳奭 (64국문)＝주임
▲明喆煥 (61국문)＝교사
▲李永旭 (78국문)＝〃
▲金昞澤 (77대학원)＝〃
▲鄭朝采 (79국문)＝〃
▲丘在完 (75과교)＝〃
▲李鶴宰 (76수교)＝〃
▲朴錫珍 (49문학)＝〃
▲金正三 (65법학)＝〃
▲林文圭 (76수교)＝〃

◇中央文高
▲朴祥權 (49국문)＝敎師
▲白仁英 (57국문)＝〃
▲尹光鳳 (73국문)＝〃

◇徽文高
▲黃福東 (55국문)＝교사
▲鄭義泓 (68국문)＝〃

◇화곡중
▲尹炳斗 (64국문)＝교사
▲黃貞九 (75체교)＝〃

◇海成女商
▲李慶麟 (61사학)＝교감
▲李啓夏 (63경영)＝교사
▲嚴和勇 (68상학)＝〃
▲盧錫仁 (50사학)＝〃

□인천시□

◇광성중고
▲張恒秀 (65政治)＝교사
▲李鎭遠 (71化學)＝〃
▲裵鍾永 (74化工)＝〃
▲金容日 (75國教)＝〃
▲金哲洪 (80國敎)＝〃

◇대건고교
▲安廷煥 (62國文)＝교사
▲李元揆 (75國文)＝〃

◇동인천고교
▲金知喆 (60化學)＝교사
▲金龍得 (64法學)＝〃
▲宋漢錫 (65經濟)＝〃
▲金東勳 (65國文)＝〃
▲黃貞容 (69行政)＝〃

◇송도고교
▲崔相仁 (80數學)＝교사

◇운산기계공고
▲朴元京 (81전기)＝교사
▲董吉泳 (81교육)＝교사

◇인천고교
▲金濟東 (42惠專)＝교장
▲金富榮 (58英文)＝교사

◇체육고교
▲黃明叙 (79科敎)＝교사

◇경인여상
▲金東旭 (78농생)＝교사
▲全薇仙 (80교육)＝〃

◇문성여상
▲李良雨 (66經濟)＝서무과장
▲朴美蘭 (81教育)＝교사

◇박문여고
▲趙喜盛 (75數學)＝교사

◇신명여고
▲宋英一 (72國文)＝교사

◇인일여고
▲吳奎東 (65法學)＝교사

◇인천여고
▲朴永燮 (64英文)＝교사
▲李相禹 (64物理)＝교사
▲金周燮 (61수학)＝〃
▲尹洪圭 (67화학)＝〃

◇인화여고
▲柳光醇 (71사학)＝교사

□경기도□

〈수원시〉

◇수원농림고교
▲金鎭旭 (61國文)＝교사
▲李相雄 (71林學) 〃
▲愼鏞信 (78통계)＝〃

◇수성고교
▲林正淳 (78통계)＝교사

◇수원공고
▲李興馥 (65經濟)＝교사
▲李柱煥 (79電氣)＝〃
▲崔鴻求 (80建築)＝교사

◇유신고교
▲申範澈 (62國文)＝교사
▲金基秀 (73〃)＝〃
▲金元淑 (77數敎)＝〃
▲金德子 (78國敎)＝〃
▲安重杰 (79國文)＝〃

◇水原女高
▲崔雄基 (57사학)＝교사
▲韓明熙 (63경영)＝〃
▲金爽卿 (62영문)＝〃
▲權寧一 (63영문)＝〃
▲任治雄 (67사학)＝〃
▲張熙三 (68식공)＝〃

〈부천시〉

◇富川고교
▲宋聖甲 (61생물)＝교사
▲權泰星 (65수학)＝〃

◇시온고교
▲黃善模 (64법학)＝교사

〈화성군〉

◇남양종합고
▲張甲鎭 (65史學)＝교사

◇발안농고
▲金用鉉 (64農學)＝교사
▲李元一 (66國文)＝〃
▲吳仁錫 (68林學)＝〃
▲金光男 (69農學)＝〃
▲金相仁 (71農經)＝〃

〈가평군〉

◇설악중고
▲李光薰 (51英文)＝교장

◇조종중고
▲高武雄 (65英文)＝교감
▲李千秀 (63林學)＝교사
▲崔東鎬 (65法學)＝〃

〈강화군〉

◇교동종합고
▲盧昌鉉 (73農學)＝교사
▲安秉學 (77농생)＝교사

〈고양군〉

◇고양종합고
▲趙平得 (57農學)＝교사
▲安聖豈 (61法學)＝〃
▲金永洙 (68英文)＝〃

〈광주군〉

◇광주상고
▲金泰燦 (77數敎)＝교사

〈김포군〉

◇김포종합고
▲李準澤 (58農學)＝교사
▲金善子 (65國文)＝〃
▲申鉉奭 (66〃)＝〃
▲姜眞一 (71林學)＝〃

◇양곡종합고
▲申鉉卓 (62國文)＝교감
▲金漢守 (77체육)＝교사
▲梁明秀 (79數學)＝〃
▲韓範相 (79電子)＝〃

〈남양주군〉

◇금곡종합고
▲柳熙春 (61英文)＝교사
▲李讚堯 (63商學)＝〃
▲鄭燦明 (63經營)＝〃
▲李仁得 (65〃)＝〃
▲權赫本 (73物理)＝〃
▲李鶴燮 (76教科)＝〃
▲朴昞榮 (76數敎)＝〃

◇광동종실업고
▲金知福 (51經濟)＝교장
▲趙孝慶 (50國文)＝교감
▲李聖浩 (64法學)＝교사
▲金敎男 (65佛敎)＝〃
▲朴惠蘭 (75數敎)＝〃
▲吳仁順 (72國文)＝〃
▲高興澤 (67林學)＝〃
▲金珍淑 (80數敎)＝〃

〈시흥군〉

◇계원예술고 (시흥군)
▲洪性沃 (77社敎)＝교사

◇소래중
▲李勳宰 (49史學)＝교장

◇안산중상고
▲權成純 (77物理)＝교사

〈안성군〉

◇안성고교
▲崔秉義 (65經濟)＝교사
▲奇宇一 (70食工)＝교사

〈포천군〉

◇抱川綜高
▲姜豊吉 (64영문)＝교사
▲尹英植 (79수학)＝교사
▲盧賢淑 (80수교)＝교사
▲李京修 (81사교)＝교사

聽覺센타 開館

總 4채널로 운영해

학생들의 語學실력 제고를 위한 청각센타(자유어학실습실)가 지난 9월10일 개관됐다.

이번에 개관된 청각센타는 총 64석으로 하루 1과씩 4채널로 운영되며 제1채널 English900, 제2채널 Intensive Course, 제3채널 American English, 제4채널은 FM음악으로되어있다.

安保硏학술강연회

南北통일정책다뤄

安保연구소(소장=閔丙天)가 주최하는 安保학술강연회가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주제로 지난9월18일 경주대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閔丙天소장의 「南北韓의 통일정책비교」, 경북대 李우영교수의 「北韓의 對南전략」이란 논제의 강연이 있은다음 참석학생들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축산장학금 支給

3명에수업료전액

축산장학회(이사장=尹月下)에서는 81학년도 2학기 장학금으로 고경자(漢醫본과) 김종섭(불미과) 정경용(불미과) 등 3명에게 수업료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했다.

同장학금은 매학기마다 지급해오고 있다.

林業種苗1급기사

모교서 10名合格

기술검정공단 시행「81년도 林業種苗1級기사시험」에 모교 고건재(임학4)군을 비롯한 10명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고건재(임학4) ▲김학용(〃) ▲박승종(〃) ▲박윤태(〃) ▲박용규(〃) ▲김태복(〃) ▲오병일(〃) ▲주명칠(〃) ▲신도철(〃) ▲이관영(〃)

停年교수歡送공연

「토바고·로오드」

연극영화학과는 李海浪 李眞淳교수 정년퇴임 환송공연으로 「어스킨 콜드웰」作 「타바코·로오드」를 무대에 올렸었다.

李海浪교수가 지도를 맡아 정년을 앞두고 지난 여름방학동안 연습준비한 同작품은 9월26~29일까지 모교小劇場에서, 10월1~4일까지는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각각 공연했다.

日本遠征 4승1패

모교 축구부善戰

모교축구팀이 日本원정경기에서 4승1패를 기록하고 지난 9月26日 하오 귀국했다.

모교팀은 國士館大와의 1·2차전을 모두 이긴데이어 川崎大, 東海大를 차례로 물리쳐 기염을 토했으나 요미우리클럽과의 5차전에선 승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청소년대표로 2명

모교축구선수선발

제3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0月3~18일·호주)에 출전하게되는 한국청소년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모교 李柱翰(GK)군과 康龍國(FW)군이 선발되었다.

黃忠載군 방어

OPBF타이틀

프로복싱 東洋·太平洋권투연맹(OPBF)웰터급챔피언 黃忠載(경행3)군이 同타이틀 8차방어전에서 도전자인 泰國의 시탄파·프라펍(1위)을 5회KO로 제압, 타이틀방어와 함께 전18승(14KO)무패를 기록했다.

安啓賢선생을 哀悼함

金 起 東 〈文理大 교수〉

◇故 安啓賢박사

오!

우리의安선생님!

부처님이 諸行은 無常하고, 生者는 心滅한다고說하셨사오나 참으로 당신의 急逝는 허무하기 그지없읍니다. 어이 그렇게도 덧없게 말없이 빨리가셨읍니까?

우리 東大는 바야흐로中興의시기를 맞이하여 어느때보다도 많은 人材가 필요한데…. 安선생님! 하필 이러한 때를 택하여다시오지못할 길을 찾아가셨오. 정말로 야속하고원통하나이다.

安先生님! 당신은 우리의 民族受難時代에 태어나 당시의 명문인 景福中學校를 마치고 광복후에는 곧장 우리東大에 들어와 학문의 바탕을닦았고, 졸업후에는 모든졸업생들이 가장 영광으로 여기는 母校의 교단에서 서 後生을 길러온지 거의 30개 성상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후배들을 가르쳤고 묵묵히 연구하여 수많은 옹골찬 論文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國史學界의 중진이 되어 각광과 촉망을 받아왔고 특히 우리나라의 불교사상사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음은 바로 安선생님 당신이었오.

이러한 훌륭한 교수를 우리 東大에서 영원히 잃고 말았으니 마귀가 시기하여 우리 安선생님을 잡아갔는지 아니면 부처님이 우리 安선생님을 필요로 하여 데려가셨는지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알수 없군요.

오! 생각할수록 슬프나이다. 10여년전에 急逝하신 禹貞相교수가 불현듯 회상됩니다. 이것이우리 東大의 운명인가요.

결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安선생님이 우리學界에서는 가장 먼저 신라의 정토사상을 연구하여 文學博士의 학위를 얻었으니 필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極樂往生을 발원하였을 것이고 그 발원에 따라 또한가장 먼저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여 급서한 것 같이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수 없소이다. 왜냐하면 安선생님의 가정에는 남과같이 살아보겠다고 아담하게 새로 지은집이 있고 당신을 극진히 돌보아주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장대 같이 자라나는 아들 현제가 있고 꽃같이 피어나는 딸 자매가 있고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당신 혼자 극락에 왕생하겠다고 급서했다는 그 이유를 아무리 헤아려도 알수 없구려.

이제 安선생님은 큰소리쳐 불러 보아도 대답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소.

그러나 우리 동대의 역사에는 安선생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남아 있을 것이오. 당신이 편집인의 한 사람이 되어 엮어낸 우리 동대의 70년사에 安선생님의 숨소리가 녹음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東大에서 安先生님을 잃은것은 몇개안되는 집 기둥의 하나가 빠져버린것 같소. 누가 그 기둥을 메워 주고 누가 그 기둥을 채워주겠소. 그 당신이 지하에서 그 동량이 될 인물을 길러 주어야 하겠소. 우리는 굳게 믿고서 그것을 당신을 저승으로 보내겠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못다한 東大의 발전을 위하여 심신을 다 바치겠읍니다.

오! 생각할수록 슬프고 또 슬프나이다. 이제는 영원히 볼수 없는 당신이 되고 말았소. 그러나 우리는 다같이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야할 運命을 같이 타고났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볼수 있는 그날이 틀림없이 오겠지요. 그날이 올때까지 安先生님! 極樂에서 부처님을 잘 모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소서.

1981년9월9일

해외이주 수속 사무소

財團法人 南美移住公社

所長 李相瀅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225
(중부소방서앞)

事務所：725—1672·2570
724—4696
720—9346~7

피엘상사

□종합기념품
□문진·상패·온컵·벽걸이 메모및 펜꽂이
□특수간판

대표 李殷吉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3가
전화：265—0413

學科別모집 대폭擴大키로

内申성적 30%反映

82년入試

同一系 한해 3志望까지 허용

모교 82학년도 대학입시안은 전년도에 전학과에 걸쳐 계열별로 모집하던 것이 학과별 모집으로 대폭 전환되었으며 고교내신성적도 작년의 20%에서 30%로 반영율이 높아졌다。또 복수지망제는 인문계와 사회계로 구분、동일계열에 한하여 제3지망까지 허용하며、예체능계는 복수지망을 불허했다。

모교가 지난 9월14일확정발표한 明年度 입시요강에 따르면 學科別 모집은 文理大 全學科를 비롯하여 工大·師大및 慶州大 人文계열 全學科에 해당하며、계열별은 佛敎大 禪學科·佛敎學科·印哲科가 歷史·哲學계열로、法政大 法學科·政外科·行政科가 法政계열로、經商大 經濟學科·무역학과가 經濟계열로、經營學科·會計學科가 경영계열로 모집한다。

입시성적은 일반학과및계열별의 경우 학력고사성적 3백40점、내신성적 1백46·7점등、총계 4백85·7점으로 지난해의 4백25점보다 60·7점이 많아졌고、예체능계는 학력고사성적 3백40점、내신성적 5백10점、실기성적 8백80점으로 1천7백점이다。

한편 82학년도 입시 원서교부는 82년1월7일~13일까지、접수는 1월11일~13일까지이며 예비소집은 1월21일 오후 2시에、면접및 합격자 발표는 1월22일 오전10시와 28일 오후4시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新入生 90명增員

本校 30·경주대 60명등

82학년도 모교 입학정원은 90명이 증원、총4천1백7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문교부가 발표한 내년도 신입생 조정내용에 따르면 모교는 서울본교30명(二部大경상계)경주대학에 60명(경상계30·인문계30)등이 증원되었으며、사범대 사회교육과가 지리교육과로 명칭이 바뀌어졌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는 수도권인구 억제시책에 따라 서울소재대학의 증원을 거의 허가치않아 모교도 야간부만 증원을 따냈다。

이로써 모교는 명년에 서울본교가 졸업정원 2천1백10명에 입학정원 2천7백43명、경주대가 졸업정원 1천1백명에 입학정원 1천4백30명으로 총4천1백7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OECF 借款도입

物理·化學科에 총1백32만弗

母校는 제2차 OECF(日本海外經濟協力基金)교육차관으로 物理學科·化學科등 2개 학과에 총1백32만1천弗을 배정받았다。

私立大의 기초학과분야와 內部施設 확충을 위해 문교부와 OECF가 계약한 이 차관은 利子率 연간4%、거치기간 7년에 상환기간은 84년 6월30일까지로 物理學科(56만弗)와 化學科(76만弗)의 실험용기재 구입비로 사용하게 된다。

金昌熙교수등特選

가을國展다수입선

81년 가을 國展에서 母校 金昌熙교수와 敎育大學院 安浩範씨가 彫刻구상부문과 西洋畵 구상부문에서 각각 특선을 차지했다。

이번 國展에서는 이외에도 趙丞煥교수와 崔明龍同門이 조각 구상부문에서、李鳳順·崔洛京同門이 서양화 구상부문에서、洪民杓同門이 서양화 抽像부문에서、李相甲·趙世鎭同門이 조각 抽像부문에서각각입선했다。

한편 지난9월 경주에서 열린「신라미술대상전」에서는 안경자(미술4)양이 東洋畵「悲」로 입선했다。

「新羅문화研」開所

경주대 민족文化발전도모

경주대학에 신라문화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을 위해「新羅文化研究所」가 발족되었다。

신라시대의 불교사상·미술·문학·역사등 제반문화유산과 그 유지、보존및 경주지방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게될 同연구소는 신라문화연구에 대한 최초의 전문적 연구기관으로 초대소장은 金廷鶴교수가 임명되었다。

「日本學研」에 一億원 희사

王清一씨에게 「金章」수여

在日 韓國人 王清一(한국京都청년회의소 상무이사)씨가 모교 日本學研究所진흥기금으로 1억원을희사、답보상태에 있던 연구소활동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同연구소는 이번 회사금으로 현재 日本 大阪외국어大·京都大에서 한국어강사를 맡고있는 金思燁씨를 불러들여 연구소의 적극활동을 도모할계획으로있다。

한편 모교는 지난9월24일 1억원의 회사금을 내놓은 王清一씨에게 모교최고의 휘장인 金章을 수여했다。

튀빙겐大교수講演

獨교육계動向소개

사범대주최의 튀빙겐大學 Wrich Herrman교수초청강연회가「獨逸교육학의動向」을 연제로 열렸다。

강연회에서 헤르만교수는 獨逸학제의 문제점을 교육정책면、교육경제면、교육문화적인면등에서 분석、評價했다。

野球部、準決勝서 敗退

예선전적 B조1위마크

가을철대학야구연맹전(9월11~24일)에 출전했던 모교 야구부는 예선리그 B조1위로 결승토너먼트에올랐으나 준결승전에서 敗退、우승의 꿈이 무산되었다。

모교는 예선전에서 嶺南에 5대2、慶熙에 5대2、中央에 2대1、檀國에 8대1、延世를 4대1로 누르는 한편 仁荷에 1대4로져 예선성적 5승1패로 B조1위를 마크하는 호조를 보였다。

결승토너먼트에서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오른 모교는 예선전에서 4대1로 보기좋게 꺾은 연세를 맞아 선전했으나 결승 문턱에서 6대3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水災의연금 전달

MBC에 71만원

모교 학도호국단(총학생장=金洪千)에서는 수재의연금으로 71만여원을 모금、문화방송국에 기탁했다。

新規교수채용

2학기부터5명

모교는 敎員人事위원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이번 2학기에 5명의 교수를 신규채용했다。

▲安民洙(文理大연영과)부교수 ▲黃璟植(文理大哲學科)=助敎授 ▲金容旭(農科大 農學科)=助敎授 ▲康俊根(文理大 統計科)=전임강사 ▲蔡大錫(經商大무역과)=전임강사

E·와싱턴大 교수

「벨」박사 母校부임

모교 姉妹대학인 美이스턴·와싱턴大學의 Davids Bell교수가 지난 9月6日 교환교수로 모교에부임했다。

지난 79년 모교와 E·와싱턴大간의 자매조인이후 모교에 첫부임케이스가 된「벨」교수는「인디애나」州立大서 정치학박사를 획득하고 E·와싱턴大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해왔는데、모교강의는 내년봄학기부터 4학년과 대학원생을 맡을 계획으로있다。

3백75명 학사경고

慶州大 성적不良者

慶州대학은 지난1학기성적을 기준으로해서 성적미달및 학점부족자등을 선별 총3백75명에대해 학사경고를 취했다。

축구부 7명 스카웃확정

공격진보강에 중점둬

82학년도母校축구부 스카웃은 금년도 고교제1의 스트라이커인 영등포공고 朴文군을비롯한 7명으로 확정되었다。

주전선수들의 졸업에대비、공격진전력보강에 역점을두고 선발한 이번스카웃은 朴군외에도 東大부고 金貞根군과 내년도海軍에서 제대하는 崔鍾大군도 포함되고있다。

▲朴文(FW) ▲柳光烈(FB) ▲崔鍾大(FW)이상 영등포공고 ▲金貞根(FW 東大附高) ▲李昌郁(GK) ▲徐庭男(FW)이상大田商高 ▲全炳權(HB 안양공고)

大學人事

▲吳京煥교수=免 佛敎大學 교학과장·佛敎大學 美術科長 ▲金仁德교수=補 佛敎大學 교학과장 ▲全榮熹교수=補 佛敎大學 美術學科長 ▲張庚鶴교수=대우교수 法政大 근무<이상9月1日字>

▲洪庭植교수=命 불교문화연구소장 ▲睦禎培교수=命 기숙사사감<이상9월22일자>

職員人事

▲朴東琪(기초과정부교학과장)=참사 昇進 ▲申日植(경리주임)=主事에서 副參事승진 ▲金有聲(연습림관리소)=실험기사대우로 승진。<이상 9월1일자>

▲張用喆=免 大學院 敎務주임 補 慶州大 敎學課長서리 ▲申日植=免 經理科經理주임 補 大學院 敎務주임 ▲薛永基=免 學生生活課 生活주임서리 補 經理課 經理주임서리 ▲宣相圭=補 生活科 生活주임서리

祝·開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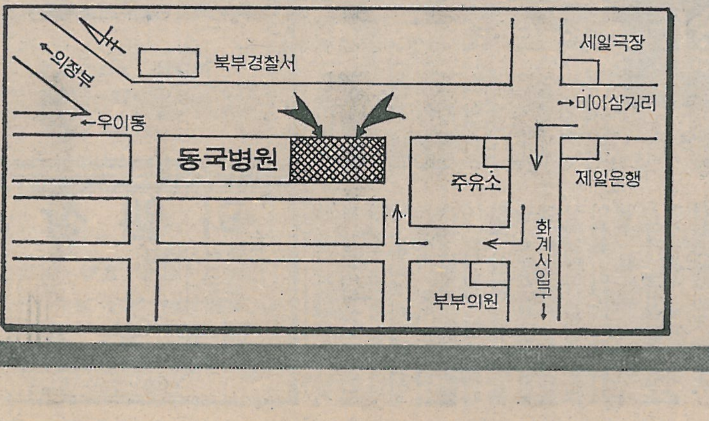
7萬 東國人의 健康은
이제부터 東國病院!

全東國人과 家族에게 30%割引

■ 최신의료시설 ■ 정예의료진 ■ 최선의시술 ■ 신속하고 알뜰한 봉사

진료과목

일반내과	피부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마취과
소아과	방사선과
정형외과	임상병리과
신경외과	치과



* 동국인에 의한 동국인의 병원

종합병원 동국병원

설립자 추 동 헌 (동국대동창회 상무이사)
원장 지 영 일 (의학박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45-5
TEL. 981-4883~4, 8817~8·980-9670